

다가올 ESG 정보공시 의무화,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ESG 정보공시 세미나

—

2023년 7월 6일

삼성KPMG

Opening Remarks

김교태 삼성KPMG CEO

ESG 정보공시 세미나 Agenda

Time	Agenda	Speaker
14:05 ~ 15:15 (70분)	<p>[Session1] 다가올 ESG 정보공시 의무화 및 기업의 대응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경영 및 공시 환경의 변화 - ISSB 공시기준 확정 및 대응 제언 - EU 지속가능보고지침(CSRD) 및 공급망 대응 사례 	<p>이동석 부대표 (삼성KPMG) 백태영 위원 (ISSB) Roxana Meschke (KPMG 독일) / 황정환 상무 (삼성KPMG)</p>
15:15 ~ 15:30 (15분)	Break Time	
15:30 ~ 16:50 (80분)	<p>[Session2] 글로벌 ESG 정보공시 대응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정보공시 전략과 핵심 과제 - 핵심 과제 #1: 정보공시 Governance - 핵심 과제 #2: 주요 이행 과제 및 이슈 - 핵심 과제 #3: ESG 정보공시 시스템 	<p>문상원 상무 (삼성KPMG) 김진귀 부대표 (삼성KPMG) / 황정환 상무(삼성KPMG) 이승근 상무 (삼성KPMG)</p>
16:50 ~ 17:00 (10분)	Q&A 및 Closing Remarks	이동석 부대표 (삼성KPMG)

Session 1

다가올 ESG 정보공시
의무화 및 기업의 대응
시사점

Presenter



T. 02. 2112. 7954

E. dongseoklee@kr.kpmg.com

이동석 부대표

Profile

- 삼성KPMG ESG 비즈니스 그룹 리더 / 전략컨설팅 사업 본부장

ESG Experience (*Selective*)

- 국내외 우수 기업 대상 100여개 ESG 자문 경험
 - ✓ ESG 연계 기업 성장전략 수립
 - ✓ ESG Governance 체계 구축
 - ✓ ESG 사업 포트폴리오 및 신사업 자문
 - ✓ 탄소중립, RE100 전략 자문
 - ✓ MSCI 평가 개선 자문
 - ✓ ESG KPI 및 인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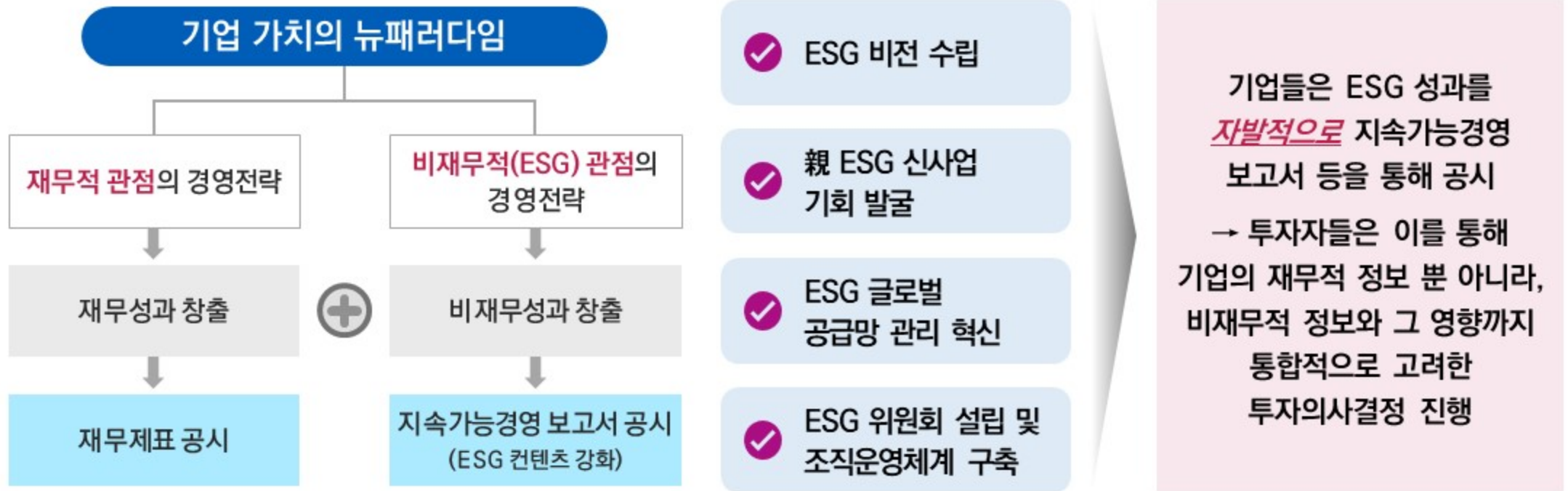
Session 1-1

ESG 경영 및 공시 환경의 변화

ESG 경영 및 공시 환경의 변화: ESG 1.0 (1/2)

지난 2~3년간 국내 기업들은 ESG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인식하고, ESG 경영전략 체계 구축 등 새로운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와 혁신 활동을 수행함

ESG 1.0 시대 ('20년 ~ '23년 상반기)



ESG 경영 및 공시 환경의 변화: ESG 1.0 (2/2)

통일된 ESG 공시 기준 부재로 기업 입장에서는 ESG 정보공시에 대한 업무 혼란 문제가 발생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도 기업의 ESG 정보공시 내용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기존 ESG 정보공시 관련 주요 이슈



✔ ESG 정보의 신뢰성 부족

✔ 기업간 ESG 성과에 대한 비교 가능성 저하

✔ Green Washing 문제 야기

ESG 경영 및 공시 환경의 변화: ESG 2.0 (1/2)

ESG 정보공시 의무화 도입이 ESG 2.0 전환의 기점이 될 것이며, 미국 및 유럽의 ESG 공시 표준화 / 규제화 도입과 함께 최근 글로벌 ESG 공시 표준이 될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발표됨

ESG 2.0 시대 ('23년 하반기 ~)

	내용	규제 시점	공시 주체
 글로벌	재무회계수준의 ESG 정보공시 요구	FY 2024	기업
 미국 SEC	SEC 상장사 기후정보공시	FY 2023	SEC 상장사
 EU EFRAG	CSRD (Taxonomy, ESRS) SFDR	FY 2024 2023년 (세부규칙 적용)	EU 역내 대기업 및 해외 기업
 한국	ESG 정보공시	2025년 이후	국내 기업 (자산 규모별 단계적)

✓ 의무화

✓ 표준화

✓ 재무 연계성

ESG 경영 및 공시 환경의 변화: ESG 2.0 (2/2)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기업들의 비재무적 (ESG) 정보가 정량적 지표로 자본시장에 공개됨에 따라, ESG가 기업가치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ESG 정보공시 의무화 IMPACT

ESG 정보 비교가능성 증대



단일 플랫폼 및 XBRL 기반
ESG 정보공시 활성화 Drive



재무제표 주석 공시 사항으로
외부감사 / SOX 범위에 포함



디지털 Taxonomy 기반 ESG
정보공시 적용 준비 중



ESG 리스크/기회에 따른 재무 영향이 기업가치에 직결

이미 글로벌 투자자들은 ESG 리스크/기회를
Valuation에 반영하는 통합투자 시행 중

“향후 5년 내 ESG는 Financial term의 하나로
완전히 내재화 될 것” (MSCI Korea)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가치 평가에 ESG
리스크/기회를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Tool

ESG 정보공시 기업 대응 방향성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공시 대응 전략 수립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ESG 기회 창출도 함께 고민해야 함

ESG 1.0 (ESG 경영 체계 구축)
('20년 ~ '23년 상반기)

- ✓ ESG 전략 방향 및 목표 설정
- ✓ ESG 관리 체계 수립

- ESG 비전 선포
- ESG 조직/위원회 구축
- ESG KPI 수립
- Quick Win 과제 실행
- 탄소 중립 로드맵 수립

ESG 2.0 (ESG 경영 고도화)
('23 하반기 ~)

- 1 ESG 정보공시 의무 대응
- 2 ESG 비즈니스 기회 창출

- ESG 공시 의무화 대응 관리/이행 체계 구축
- ESG 사업 기회 발굴 (저탄소 비즈니스 등)
- ESG Operational Excellence

*정보공시 대응 뿐
아니라, 기회 창출도
병행해야 함
(ESG 기반
Value-Up)*

ESG 정보공시 세미나 주요 Agenda

금일 세미나에서는 신규 공시 기준의 최신 동향과 국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Session 1 What to do?

- ✓ 글로벌 주요 ESG 정보공시 기준에 대한 Update 및 주요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다가올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시사점 제시
 - ISSB 공시 확정(안) 및 대응 방향
 - EU CSRD 공시 기준 Update 및 주요 대응 사례

Session 2 How to do?

- ✓ 국내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 대응 관련 주요 현황 / 이슈 분석 기반 대응 전략 및 로드맵 제언
 - ESG 정보공시 의무화 대응 관련 국내 기업의 주요 난제 및 대응 방안
 - 공시 의무화 대응을 위한 필수 Infra인 ESG 정보공시시스템 (KPMG LINC) 시연

Presenter



T. 02. 760. 0504

E. typaik@skku.edu

백태영 위원

Profile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IS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위원

Session 1-2

**ISSB 공시기준 확정 및
대응 제언**

ISSB 기준: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더 나은 정보



조직구조

공적 책임

IFRS 재단 Monitoring Board

지배구조, 전략, 감독

IFRS 재단 이사회 (Trustees)

독립적 기준제정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

IFRS 해석위원회

시장의 강력한 수요

-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비교가능한 정보,
- 자발적 공시제도의 ‘알파벳 스프(난립)’을 지양,
- 효율적인 보고 환경에 대한

투자자, 기업, 국제정책기관(G20, G7, IOSCO, Financial Stability Board 등)의 요구로 ISSB가 IFRS재단의 산하에 설립됨

The ISSB는 투명하고 엄격한 절차로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준을 개발함

ISSB 기준은 투자자-기업간 의사소통을 개선



의사결정에 유용

투자자의 요구에 답하는
검증가능하고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개발



비용-효과적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의사소통
할 수 있게 함

상호운영가능성을 통한 효율적 보고의 달성

- European Commission 등의 보고의무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국가**들과 지속적 의견교환
- 기존 보고 틀과 규제와 맞추기 위해 **TCFD 구조**를 채택
- **CDP**는 IFRS S2 기준에 플랫폼을 맞춤
- 지속가능성 보고 환경의 추가적인 조화를 위해 **GRI**와 협조

공시의 진정한 국제적 기준선(global baseline)



추가적
빌딩블록

- 지역별 공시의무를 위해 추가 가능
-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수요를 위해 추가 가능

ISSB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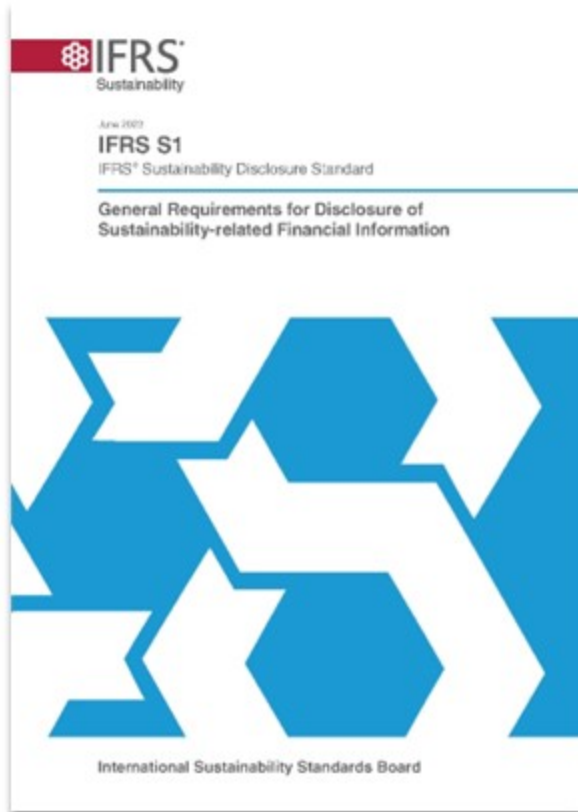
- 전세계 국가 의무도입의 포괄적 기초를 제공
- 비교 가능하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공시의 공통 언어
- 전세계 자본시장의 투자자 수요를 위해 설계됨

투자자 관점의 기준과 프레임워크에 기반

IFRS 재단에 통합됨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의 일반요구사항



- 투자자 정보 필요를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중요 정보**의 공시를 요구
- **TCFD 구조**를 적용
- **산업별 공시**를 요구
- 기후(IFRS S2) 이외의 주제를 위한 **기업 지원용 참고자료**를 기술
- **모든 회계기준(GAAP)**과 같이 사용 가능

지속가능성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기업이 투자자에게 재무적 가치를 제공하는 능력은 다음 요소에 의존함

이해관계자



사회



자연자원



통합보고 프레임워크(Integrated Reporting Framework) 개념에 기반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중요성 판단

*정보의 누락, 왜곡, 불명확화가
투자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IFRS 회계기준의 중요성 정의에 기반함

지속가능성 공시의 가이드런스



어떤 위험과 기회?

적합한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은 ISSB 기준을 사용하고

- **SASB 기준 사용을 고려해야 함**
- CDSB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런스
- 산업 실무관행
- 투자자 관점의 다른 기준의 자료를 **고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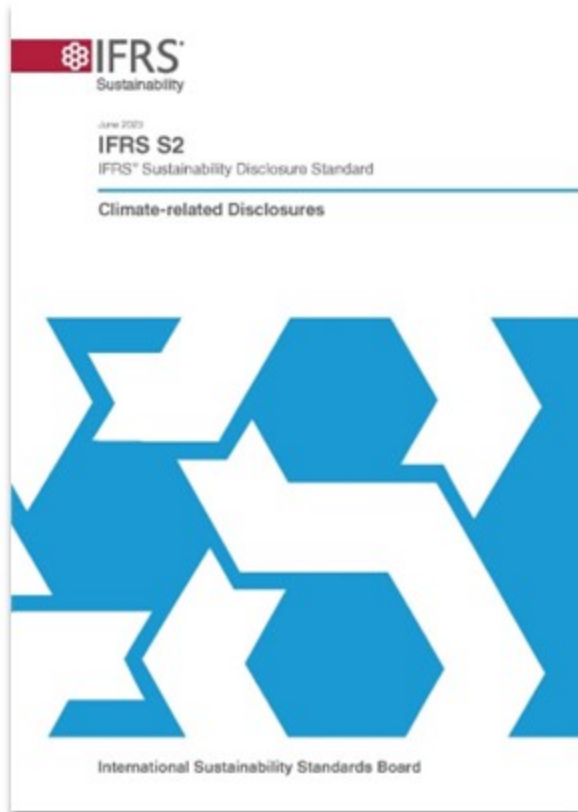


어떤 정보?

기후 이외 주제의 공시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은 ISSB 기준을 사용하고

- **SASB 기준 사용을 고려해야 함**
- CDSB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런스
- 산업 실무관행
- 투자자 관점의 다른 기준의 자료
- GRI 기준, ESRS(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을 투자자 정보 필요를 맞추는 범위내에서 **고려할 수 있음**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 TCFD 권고사항을 완전히 반영
- 투자자 정보 필요를 맞추기 위해
 - IFRS S1과 함께 사용
 -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중요 정보 (물리적 및 전환 위험 등)의 공시를 요구
 - SASB 기준에 기반한 첨부 가이드언스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별 공시를 요구

기후 관련 중요 정보의 투자자 활용

- 기업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영향을 판단
-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대응과 전략 (기후 관련 전환계획 등)을 이해
-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해 기업이 기획, 비즈니스 모델, 운영을 적응시키는 능력을 평가
- 기업의 가치사슬에 존재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이해

핵심 공시내용



전략

전략과 의사결정

현재와 예상 재무영향

기후 회복력



지표와 목표

Scope 1-3 온실가스 배출량

산업별 공시

기후 관련 목표

기후 회복력

기후 관련 변화, 발전,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의 전략, 비즈니스 모델의 회복력



기후 회복력 평가



시나리오 분석의
입력자료와 핵심가정

온실가스 배출량

i Scope 1, Scope 2, Scope 3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공시

- Scope 1: 직접 배출량
- Scope 2: 기업이 구입 소비한 에너지 생산에 대한 간접 배출량
- Scope 3: 기업 가치사슬에서 발생한 다른 모든 간접 배출량

배출량 측정에 사용한 구체적
입력자료, 가정, 추정법(과 그
변화)의 내용과 이유의 공시

GHG Protocol Corporate Standard에 따라 측정

기준 적용의 지원

- 잘 알려진 용어와 개념 사용
- 비례성:
 - 지나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사용가능한 합리적이고 입증가능한 정보의 사용
 - 기술, 능력, 자원의 고려
- 지원:
 - 기준과 교육자료 내의 가이드런스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지표 파악을 위한 참고 가이드런스 제공
 - 비계량적 시나리오 분석과 재무영향에 대한 비계량적 정보 공시를 허용
- 한시적 완화

ISSB 기준이 글로벌 기준선이 되려면



ISSB

기준제정으로 포괄적
글로벌 기준선 제공



IOSCO

기준을 평가하고
도입을 권장



검증 기준
제정기구

검증 기준을
개선하고 개발



지역국가

기준 도입과 의무화



시장 참여자

자발적 기준 적용

ISSB 기준의 혜택

- **투자자:** 좀더 일관되고 비교 및 검증가능하고 포괄적인 공시의 제공
- **기업:** 지배구조, 전략, 자본 확보, 자본비용, 평판, 직원/이해관계자 관계 등에 긍정적 효과
- **자본시장:**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 대한 투명성 개선은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도움

ISSB 주요 결정사항

- **보고시기**: 재무보고와 같은 시기로 하되, 첫번째 보고기간 1년간 차년도 **반기 재무정보 보고시점**에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도 공시 허용
- **Scope 3 공시 유예**: 모든 기업에 대해 Scope 3 배출량 공시 요구 시행일 1년 유예
- **금융배출량 공시요구**: 금융기관에 추가지표인 **금융배출량 공시 요구** (촉진배출량은 제거)
- **S1공시 유예**: S1공시는 적용시점부터 기후를 제외하고 1년간 공시유예
- **비교정보 재작성**: 추정치가 갱신되는 경우 전기 비교정보 재작성 요구
- **기후 회복력**: 기후 회복력 분석 시 **시나리오분석**을 사용하도록 요구

공시부담에 의한 공시요구 완화 세부내용: 비례성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다음 세부 공시내용에 사용

- | | |
|------------------------|------------------|
| 1) 위험과 기회의 식별 | 2) 가치사슬의 범위 |
| 3)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 4) 미래 재무적 영향 공시* |
| 5)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 6) 특정 산업전반 지표 계산 |

* 기업내 기술, 역량, 자원을 고려

적용시 요구사항

- 1) 이미 알려진 정보를 포함하여 보유한 정보 등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
- 2) 합리적 근거 필요
- 3) 완전한 조사는 불필요
- 4) 보고일에 이용가능한 과거, 현재, 예측정보를 고려

6월에 확정된 기준서와 부속서류

	S1	S2
기준서 :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정보 공시 기준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이드라인 : 기준서 일부인 적용가이드라인과 기준서 일부가 아닌 예시 가이드라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업기반 가이드라인 : SICCS를 사용한 산업기반 가이드라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출근거 : 기준서의 일부가 아니며 기준서를 개발할 때 ISSB의 고려사항을 요약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앞으로 할 일

확약된 일:

- 재무제표 연계성
- 지역국가 및 자발적 제도와의 상호운영성

IFRS S1 and IFRS S2 실행 지원

- 디지털 분류체계(taxonomy)
-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 규제기관 의무도입 및 자발적 적용

추가작업:

- SASB 기준의 개선과 정비
- IFRS S2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환경 및 사회 이슈를 주목하는 공시의 연구

미래 우선순위:

- 2023년 9월 1일까지 의견수렴

추가정보는 ifrs.org에서

- 기준과 지원자료 ([Access 링크](#))
- 월간 팟캐스트 ([podcast 링크](#))
- 실시간 의견수렴 ([consultations 링크](#))
- 뉴스 제공 신청 ([Sign up 링크](#))
- 지원서비스 ([services 링크](#))
- ISSB 회의 시청 ([Observe 링크](#))
- 취업지원 ([Join 링크](#))

Presenter



T. +49 69 9887 3428

E. rmeschke@kpmg.com

Roxana Meschke (록사나 미쉬카)

Profile

- KPMG 독일 ESG 서비스 그룹 파트너

ESG Experience (*Selective*)

- 유럽 진출 한국, 일본, 미국 등 비유럽 기업의 CSRD 및 ESG 공급망 대응 자문 다수 수행
 - ✓ EU Taxonomy, CSRD/NFRD, GRI, etc.
 - ✓ Supply Chain Acts Assurance over non-financial disclosure
- 유럽 선도 기업 대상 ESG 경영 전략 프로젝트 다수 수행
 - ✓ Sustainability reports, governance system, ESG organization
 - ✓ ESG tools & software

Session 1-3

EU CSRD

(지속가능보고지침) 및
공급망 대응 사례

Overview

- 01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Update
- 02 How to implement CSRD
- 03 Supply Chain Due Diligence



01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 Update

주요내용

✓ CSRD 최신 동향은?

- 2023년 6월 9일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CSRD) 초안 개정본 발표
- 4주간의 피드백 기간(7월 7일까지)을 걸쳐 EU 위원회에서 채택할 예정
- 2023년 8월 말까지는 최종본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 (해당 법령이 2024년 1월 1일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EU의 목표)



CSRD는 EU의 “지속가능성보고 관련 포괄적인 지침”으로서 CSRD에는 본 세션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공시기준 및 법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 (ESRS)
- EU 녹색분류체계 (EU taxonomy)
- EU 공급망실사법 (EU Supply chain DD)



Published on June, 9th 2023

Draft of Delegated Regulation plus two Annexes



-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What is coming up?

Feedback period

- This draft act is open for feedback for 4 weeks.
- Feedback Period: 9th of June 2023 – 7th of July 2023

Publication of Delegated Act

- After the review of the feedback the delegated act will be adopted by the EU Commission
- No official publication date is set
- Publication to be expected until the end of August 23 to ensure the target date of the 1st of January 24 for the CSRD to come into force

주요내용

☑ 개정 CSRD 주요 변경사항은?

1. 중대성평가 대상 기준서 확대

- 일반공시사항인 E2를 제외한 ESRS 기준의 모든 공시요구사항이 중대성 평가대상으로 변경 (변경전에는 E1, S1은 의무공시대상)

2. 단계적인 확대 적용

- 모든 기업: 효력 발생 첫 해에 기후 외의 환경이슈(오염, 수자원 등) 및 일부 임직원 관련 데이터의 재무 영향은 생략 가능
- 임직원 750명 미만 기업: 효력 발생 첫해에 Scope 3 배출량 등 일부 공시요건 생략 가능

3. 자발적이고 유연한 공시

- 일부 의무공시사항이 자발적공시로 변경 (예: S1 비상근직 근로자 지표)
- 일부 의무공시사항에 좀더 유연한 공시 방안을 도입 (예: 재무 영향 공시 완화)



기업의 공시부담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Selected changes

Materiality

- All standards and all disclosure requirements and data points within each standard will be subject to materiality assessment. This implies that ESRS E1 and S1 are now subject to a materiality assessment and no longer mandatory.
- An exception present the disclosure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General disclosures” standard.

Expansion of phase-in concept

- In the first year of application all undertakings may omit anticipated financial effects related to non-climate environmental issues (pollution, water, etc.) and certain datapoints related to their own workforce (social protection, persons with disabilities, work-related ill-health, and work-life balance)
- Undertakings with less than 750 employees may omit certain elements in the first years of application, e.g., scope 3 GHG emissions data

Voluntary and flexible datapoints

- The Commission converted several mandatory datapoints proposed by EFRAG into voluntary datapoints e.g., certain indicators about “non-employees” in the undertaking’s own workforce in ESRS S1
- Introduction of certain flexibilities for some of the mandatory datapoints e.g., more flexibility in disclosures on the financial impact of sustainability risks

Disclaimer: The adjustments by the EU Commission can have a content wise impact on the disclosure and application requirements. A more detailed analysis is ongoing.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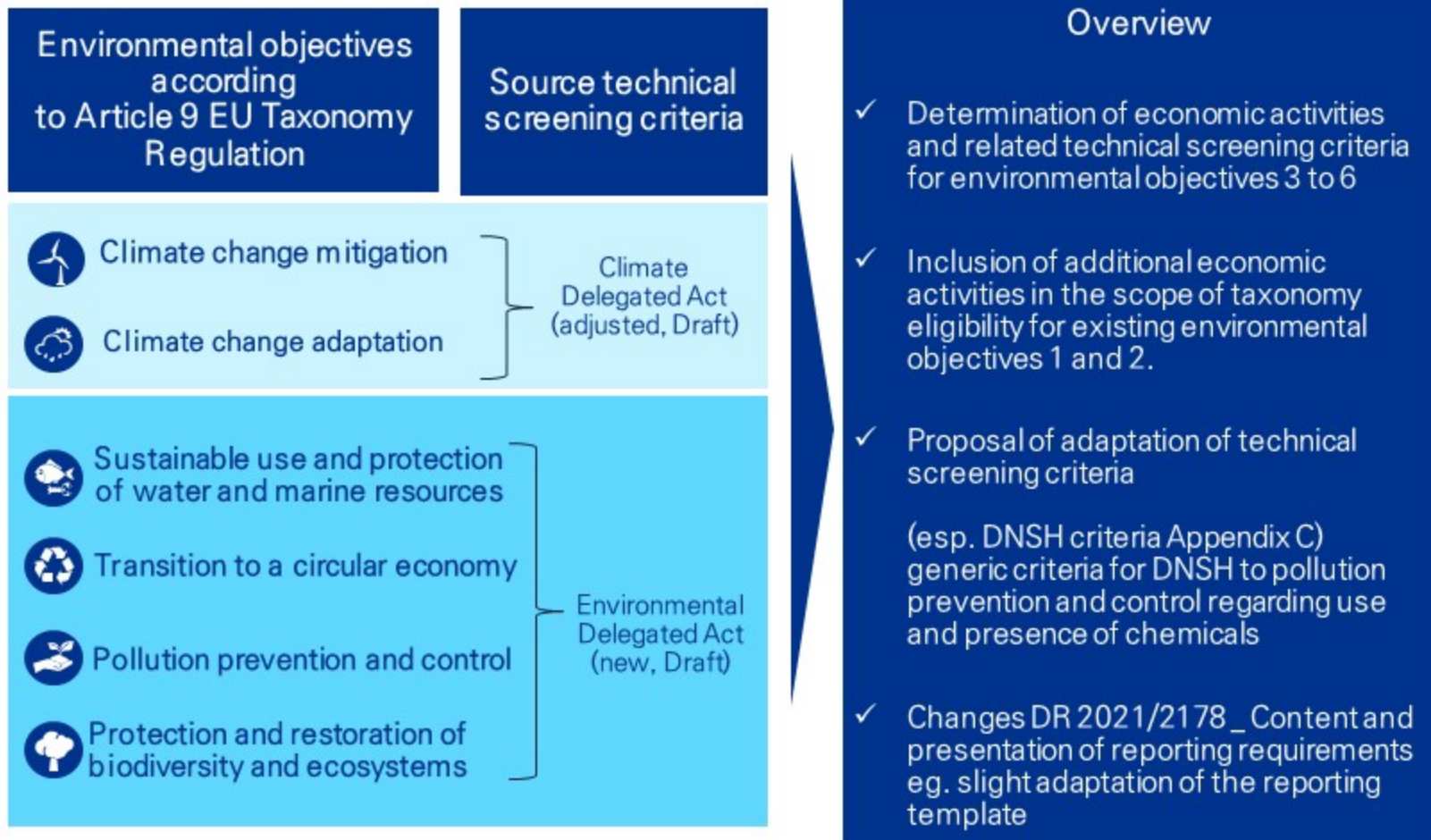
EU Taxonomy 업데이트

- 2023년 6월 환경위임법이 승인됨에 따라 **환경목표 3, 4, 5, 6에 부합하는 경제활동 및 관련 기술선별기준 신규 제정**
- 2023년 기후위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목표 1&2에 부합하는 경제활동 관련 사항 일부 개정 (특히, 기술선별기준 관련 수정사항 예: DNSH 기준)**



EU Taxonomy는 기후위임법, 환경위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환경목표 1&2는 기후완화/적응이며 3~6은 수자원,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 목표를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의 의미는 환경목표 1&2에 대해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3~6은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02

How to implement CSRD

주요내용

How to implement CSRD

CSRD Scoping starts on the following levels...

CSRD 적용대상 및 범위

1. Non-EU 모회사

- 요건 충족시 Non-EU 모회사도 CSRD적용
- 적용시기: 25년-자발적 / 28년-의무적용

적용요건

- EU 내 2개년도 연속 순매출이 € 150M 초과하며 아래 중 최소 하나 이상 충족 시
- CSRD 일반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종속회사 또는
 - 전년도 € 40M 초과하는 지점

2. EU 종속회사

- 요건 충족시 Non-EU 모회사도 CSRD적용
- 적용시기: 25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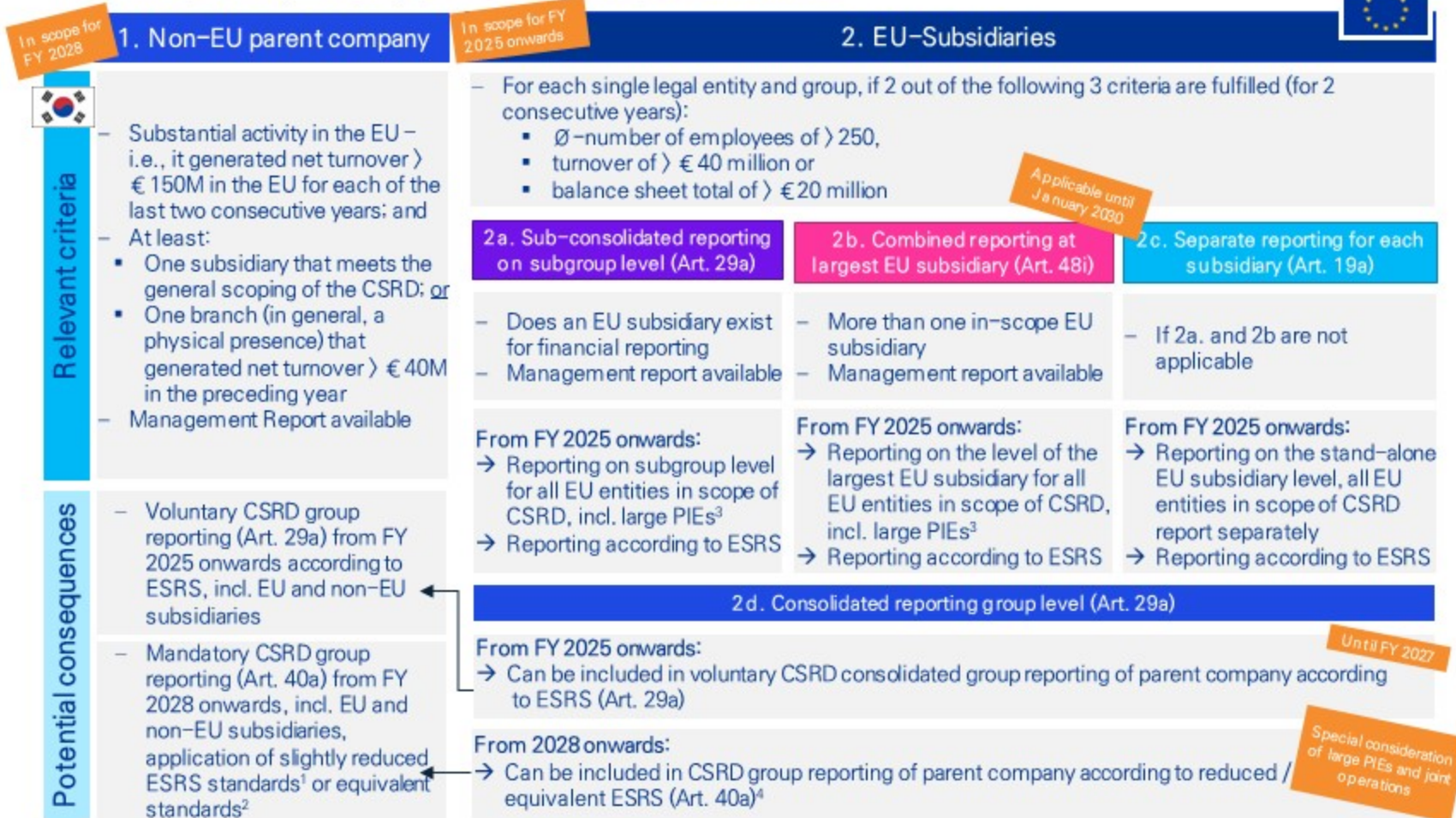
공시방법 - 면제조항 선택

- 선택1 : EU 내 중간 연결회사가 공시
- 선택2 : 가장 규모가 큰 종속회사가 통합공시
- 선택3 : 각 종속회사별로 개별공시
- 선택4 : 그룹 연결 모회사가 통합공시

CSRD 일반적용요건

- 아래 요건 중 최소 2개이상 충족하는 경우
- 임직원 250명 초과 / 매출액 € 40M 초과 / 자산총액 € 20M초과

This overview represents the general reporting options for non-EU parent companies with EU-subidiaries.



1 To be published 2 To be defined 3 Large PIEs have to publish an additional sustainability statement

4 It is still unclear whether the Non-EU Parent consolidated report in accordance with reduced ESRS will exempt EU subsidiaries from its own reporting requirements.

주요내용

How to implement CSRD

Our KPMG CSRD Project Approach at a g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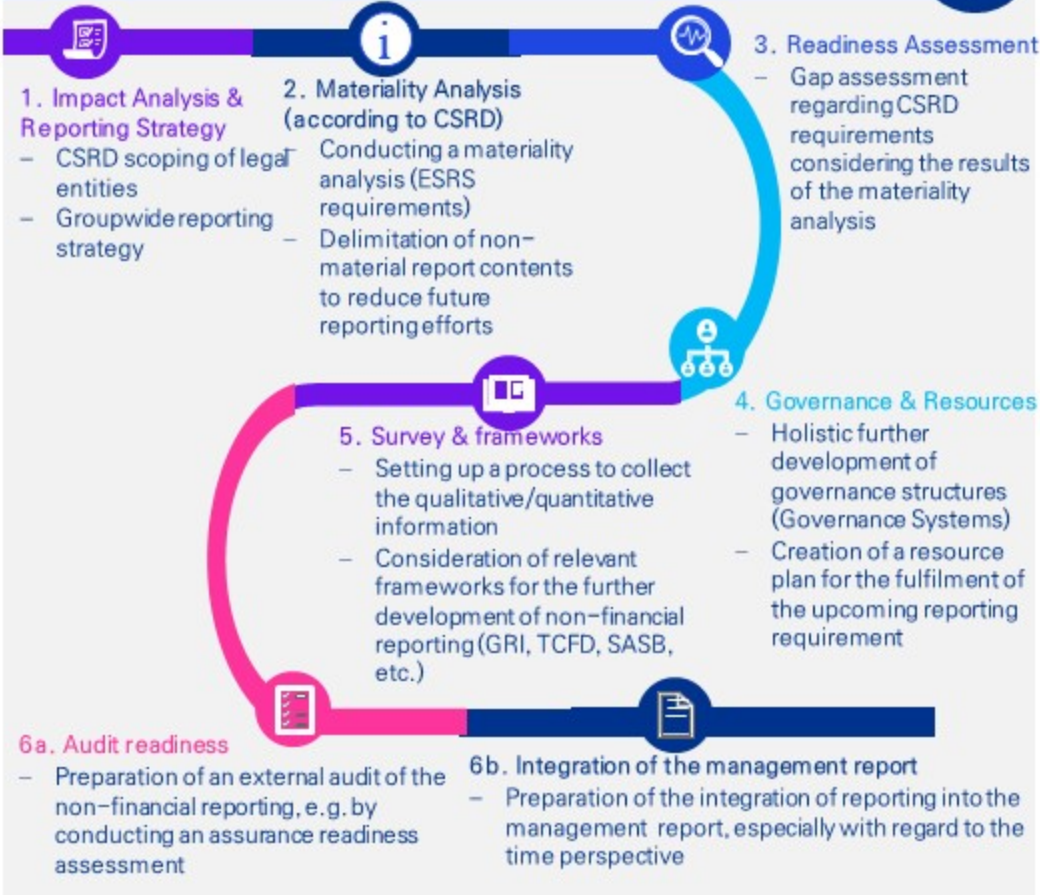
✔ CSRD 이행 KPMG 6단계 접근법

- 영향분석 & 공시전략 수립
- 중대성 평가
- CSRD Readiness 갭분석
- 거버넌스 & 인원계획수립
- 공시프레임워크 수립
- 외부감사준비 & 통합보고

💡 주요 시사점 및 도전과제 CASE STUDY

- 연결 & 면제조항 적용을 위한 범위 정의
 - ESG전략 등과 연계
 - 조기 중대성 및 갭분석 계획수립
 - ESG조직수립과 ESG 목표운영모델 (TOM)
- 💡 현재 보고기준을 ESG 요구사항과 통합
 - 새로운 규정 및 기준서변화에 대한 대응

Our approach: The six steps towards CSRD compliance



Selected Insights & Challenges

- Definition of consolidation scope & exemption rules
- Align on ESG strategy & ambition as well as Green Equity Story first
- Plan for early materiality & gap analysis
- Set up of ESG Organisation and ESG TOM
- Use existing methods and frameworks to integrate ESG requirements
- Ongoing changes in the regulations as well as new publications

주요내용

How to implement CSRD

CASE STUDY – CSRD Materiality Assessment

한국기업 적용사례-CSRD 중대성평가

회사	독일 소재 한국기업 (유럽HQ)
프로젝트 수행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CSRD 적용대상 계열사 식별 CSRD 공시데이터 가용여부 분석 중대성 평가 수행

KPMG 프로젝트 주요이슈

구분	내용
이슈 #1	<p>연결 & 면제조항 적용을 위한 범위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CSRD 적용 시 면제조항을 통해 보고수준을 다양하게 설정가능 보고수준 정의에 따라 중대성평가 결과 달라질 수 있으나, 대상 기업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중대성평가를 수행함
	<p>CSRD 요구사항의 복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ESG보고서와 CSRD요구사항 간 중대성평가를 포함하여 큰 차이 존재 전세계/유럽권역/국내 정보산출방식 alignment 필요

Project Insights 1

Project name	CSRD Materiality Assessment & Strategy Development
Industry	Automotive
Company structure	European Headquarter of Korean Company in GER
Phases of the project	<ol style="list-style-type: none"> Consolidation scope & reporting requirements Support Materiality Assessment Training & Communication
Insights	
Next ste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p Assessment Global Reporting in 2025

Major Challenges

1 Definition of consolidation scope & applied exemption rules

- Challenge: starting with Materiality Assessment (MA) without elaboration on reporting level. MA concept and results highly dependent on reporting decision (global level, European consolidation level, single entity level)
- For exemption on European level: need of EU financial consolidation entity, insecurities due to ongoing national law setting procedures

2 Complex CSRD requirements

- Example of mandatory CSRD requirements of MA, leading to necessary adjustments of current materiality procedure:
 - defined topics/sub-topics and related potential material impacts (actual / potential, negative or positive), risks or opportunities (IROs);
 - Assessment of IROs regarding impact materiality & financial materiality
 - Thresholds & aggregation method
- Big gap between ESG report vs. CSRD requirements, alignment of global/ European/ local procedure necessary

CSRD Wrap-up



03

Supply Chain Due Diligence

주요내용

독일 및 EU공급망 실사법 소개

1. 독일 공급망 실사법 (LkSG)

- 기업과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기업 책임을 부여
- 적용시기 :
 - 23년부터 임직원 3천명 이상 기업
 - 24년부터 임직원 천명 이상 기업에 적용

2. 유럽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CSDDD)

- 글로벌 공급망을 포함한 기업의 전 가치사슬 활동에 적용을 논의 중
- 적용시기 : 26년부터 적용



논의 중인 실사지침 사항:

- EU 기반여부와 기업규모 및 고위험산업군과 같은 기준으로 Group 1과 2로 나누어 적용
- 기존 요구사항에 파리기후협약 1.5°C 이하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전략 등 추가 요구사항 (Group에 따라 시행연도 다르게 적용)

Draft

	Germany's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LkSG)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Overview	German law on corporate due diligence obligations on human rights and related environmental topics <i>within own business area and supply chains.</i>	European Commission has published a proposal and the Council of the EU and European Parliament have each adopted their position for a directive on corporate due diligence obligations o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topics throughout their global value chains / chain of activities. → Upcoming trilogue negotiations
Scope	Companies in Germany*: 3.000+ employees (since 2023) 1.000+ employees (from 2024 onwards)	Differentiation between Group 1 and Group 2 depending on whether EU-based or non-EU based, size and net turnover (and high-risk sectors).
Oblig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Risk management (Section 4) Risk analysis (Section 5) Prevention measures (Section 6) Remedial action (Section 7) Complaints procedure (Section 8) Indirect suppliers (Section 9) Documentation and reporting (Section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pany policies (Article 5) Risk assessment (Article 6) Prevention measures (Article 7) Remedial action (Article 8) Complaints procedure (Article 9) Effectiveness monitoring (Article 10) Annual report (Article 11) <p>+ Alignment with Paris Agreement</p> <p>+ Directors' duties</p> <p>+ Variable remuneration for directors</p>

under negotiation

* for companies with their head offic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r administrative headquarters, registered office or branch office located in Germany

주요내용

Supply Chain Due Diligence Linkages between regulatory requirements

독일 및 EU공급망 실사법 요구사항

시행일

- LkSG (독일 공급망 실사법) : 23년
- CSDDD (EU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 26년
- CSRD (EU 기업지속가능성지침) : 24년

LkSG/CSDDD 및 CSRD 간 주요 차이점

구분	내용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kSG/CSDDD 은 기업의 직간접 사업관계 및 업, 다운스트림 가치사슬을 모두 포함하여 CSRD보다 적용범위가 넓음 • CSRD는 기업과 공급사, 고객 및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포함
외부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kSG/CSDDD 은 개별 규제당국 재량으로 감사 여부 및 수준 확정 • CSRD는 외부감사 의무화



	Criteria for application	First time application	Scope of content	Scope of supply chain	Audit	Form of reporting	Sanctions & liability
LkSG (CSDD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ployees - [Revenue] - [Sector] 	01.01.2023 [approx. 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rk environment - Human rights - Environment - [Clim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rect & [Indirect] Business Relationships* - Upstream & [downstream] value chain* 	Authority to be defined by individual member states / BAF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liance with due diligence requirements - In the [management report or] separate report 	Up to 2% of annual turnover [To be defined by member states] [Civil liability]
CS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ployees** - Total assets** - Revenue** 	01.01.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man rights*** - Supply ch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iness division - Suppliers - Consumers - Communities affected 	Mandatory external au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uble Materiality - ESRS-disclosure requirements - In the management report 	Defined by member states

- * Under negotiation | ** Two out of the three criteria apply | *** CSRD covers more than human rights. Only social standards were considered here

● ● announced ■ ■ decided — — — — mandatory

주요내용

☑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 보고 의무

공시채널: 연차보고서에 공시

- 해당 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시점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기업 홈페이지에 공시
- LkSG 제1(1) 조에 해당되는 관계사의 경우 **별도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며, 본사 및 자회사는 설문 보고서 상 모든 질문에 답변

공시내용



- 기업이 식별한 인권 및 환경 위험 또는 실사의무 위반 사항
- **실사 수행 및 조치 내용**
- 조치의 영향과 효과를 평가한 **방법과 향후 조치에 대한 결론**

“The enterprise must prepare an annual report on the fulfilment of its due diligence obligations in the previous financial year and make it publicly available [...] – LkSG Section 10 (2) ”

- Report must be submitted to BAFA and made publicly available online the company's website no later than four months after the end of the financial year
- Report consists of multiple-choice questions as well as closed questions (yes / no).
- Affiliated companies: all companie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Section 1 (1) LkSG must submit a separate report. Group parent company and subsidiary must each answer the questions on the report questionnaire in full.
- BAFA checks how plausible a company's submitted report is.

Content of the report

- Whether and, if so, what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risks or violations of the due diligence obligations the company has identified.
- What the company has done with reference to the due diligence obligations described in the law (Sections 4 – 9), including the elements of the policy statement (Section 6) and the measures the company has taken in response to complaints (Sections 8, 9).
- How the company evaluates the impact and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 What conclusions it draws from the evaluation for future measures.

Link to BAFA resources: [BAFA-Extranet / Portal - Registrierung \(bund.de\)](https://www.bafa.de/BAFA-Extranet/Portal-Registrierung/bund.de)

✓ 공급망 실사법 최근 동향

- 독일 연방경제수출통제청 (BAFA) 에서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가이드북 발간**
- 독일 연방경제수출통제청 (BAFA) 에서 실사를 위해 회사들을 대상으로 첫번째 정보 요청
- IKEA, Amazon, VW, Mercedes-Benz, BMW의 잠재적 인권침해 위반 사항 제출
- 유럽의회는 EU공급망 실사법 (CSDDD)에 대한 입장을 채택하고, EU삼림벌채규정 (EUDR)의 채택여부에 대해 투표실시

Various handouts have been published by BAFA as guida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kSG



Complaints against IKEA, Amazon, VW, Mercedes-Benz and BMW for potential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ir supply chains were filed with BAFA



BAFA has addressed its first request for information (Section 17 LkSG) to companies



European Parliament adopted its position for EU supply chain due diligence & voted for the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EUDR)



주요내용

독일기업 적용사례-공급망실사법

회사	독일 상장기업
프로젝트 수행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실사법 대응 로드맵 수립 공급망실사법 대응체계 구축 교육 및 BAFA report 작성

KPMG 프로젝트 주요이슈

구분	내용
이슈 #1	공급망실사법 적용대상 선정 및 내부조직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실사법 적용대상 정의 - 어느 수준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예: 간접(2차) supplier 포함여부) 공급망실사 업무 담당 인력이 다수부서에 분산 (예: 조달, 법무, 위험관리) → 실사법 대응 위한 조직 개편 필요성
이슈 #2	계열사 별 별도 조달시스템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 관리체계 구축 장애요인
이슈 #3	거버넌스를 고려한 규제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거버넌스 구조를 고려하면서 많은 규제(공급망실사법, EU Taxonomy, CSRD)를 조화시키는 공급망관리체계 구축의 어려움

Project Insights 2

Project name	German Supply Chain Act (phase 1)
Industry	Retail
Company structure	German group (listed)
Phases of the project	<ol style="list-style-type: none"> Status Quo & Gap Assessment, Target Picture, Roadmap for implementation Implementation regarding LkSG matters Trainings & BAFA report

Insights

The insights section displays four key visualizations:

- Risk Analysis Table:** A table with columns for 'Country', 'Risk Code', and 'Risk Level', showing various risk entries.
- Human rights risk of combination (country & business model):** A 3x3 matrix with risk levels ranging from 0 to 3.
- Risk Analysis Own Business:** A diagram showing 'Topics, risks and measures' for internal business operations.
- Risk Analysis Suppliers:** A diagram showing 'Extract and concrete analysis' for external suppliers.

Major Challenges

- 1 Performance of Risk Analysis of suppliers**
 - Complex due to number of suppliers, different types, categorization (A, B, C), coverage of suppliers (e.g. indirect supplier)
 - Roles & Responsibilities (responsible persons are placed in different departments based on company structure, e.g. Procurement, Compliance, Risk Mgmt, Legal...)
- 2 Different IT landscapes within Procurement department**
 - Different segments in the group with different tools, different processes, etc.
 - Tool selection & steering of risk questionnaires
- 3 Missing use of synergies between different regulations**
 - LkSG, Minimum Safeguards (EU-Taxonomy), CSRD - S-standards
 - Different responsibilities, workstreams, new organizational set up for each regulation
 - Integrate & harmonize LkSG approach with existing Corp. Governance structures & processes



Supply Chain Due Diligence Wrap-up



04

Questions & Answers

Break

Session 2

글로벌 ESG 정보공시 대응 방안

Presenter



T. 02. 2112. 6513

E. sangwonmoon@kr.kpmg.com

문상원 상무

Profile

- 삼성KPMG ESG & Strategy Practice 리더

ESG Experience (*Selective*)

- 롯데그룹, 삼성전자, SK그룹, 하나금융그룹, NH금융 그룹 등 국내 선도 기업 ESG 경영 전략 수립 프로젝트 다수 수행
 - ✓ ESG 경영 전략 수립
 - ✓ 탄소중립, RE100 전략 및 저탄소 Biz. 전략 수립
 - ✓ ESG 공시 대응 자문
 - ✓ MSCI ESG 평가 대응 자문
 - ✓ ESG KPI 및 인사 관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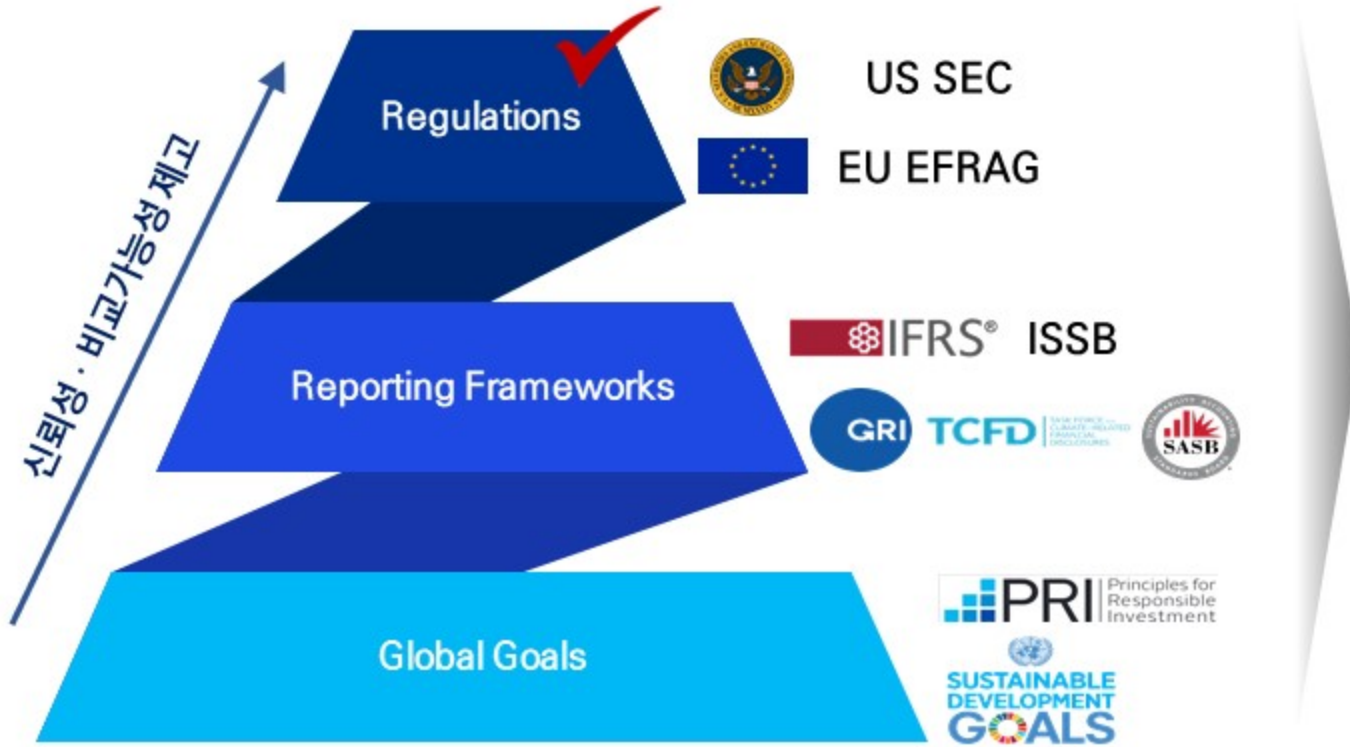
Session 2-1

ESG 정보공시 전략과
핵심 과제

ESG 정보공시 의무화 도입의 의미

ESG 정보공시 의무화는 재무보고 수준으로 ESG 정보공시 강화 목표

→ 공시 내용의 신뢰성 및 기업 간 비교가능성 증대, 공시 내용 경영진 책임 강화



✓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들은 각 기준에 맞는 ESG 정보공시 의무적 시행 필수

✓ 재무제표 공시 시점에 맞춰 정량화 된 ESG 정보를 신뢰성 있게 공개할 의무 부여

✓ 공시 내용은 정부, 투자자, 고객 등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

ESG 정보공시 의무화 대응의 주요 난제

글로벌 ESG 정보공시 기준들이 요구하는 공시 난이도가 매우 높고 복잡

→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국내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 필수

✔ 주요 공시 내용이 연결기준 또는 Value Chain에 기반하여 공시하도록 요구

- 해외법인이나 자회사들의 경우, ESG 관련 조직과 관리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 기후변화에 대한 재무영향 분석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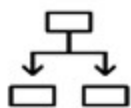
- 기존에 이러한 분석을 정교하게 해 본 기업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 재무제표와 동일한 시점에 공시 요구 및 공시 내용에 대한 인증 요구

- ESG Data 생성의 적시성 / 객관성 / 신뢰성이 매우 중요 (既 수기 입력 중심의 관리 방식으로는 대응 불가능)

국내 기업들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 대응 여건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 대응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
(정보공시 프로세스 부재로 인한 일회성 업무, 데이터 분산 및 시스템 부재로 수작업 의존 등)



정보공시 프로세스 부재

- 일관된 보고 기준 부족 및 비표준화 된 프로세스 / 내부통제
- 업무의 중복 / 복잡성 증대 및 불명확한 R&R



조직 내 관심 부족

- ESG 공시는 '형식적인 캠페인' 일 뿐이라는 잘못된 인식
- 조직 전반적으로 제한된 협업



분산된 정보

- 조직 전반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
- 담당자별 일관되지 않는 보고 범위 및 취합 프로세스 부재



데이터 품질 이슈

- 문서화된 데이터 요건 부재 및 데이터 관리 미흡
-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역량 및 경험 부족



공시 거버넌스 부재

- CFO Engagement 부족 및 전사 내재화 부족
- ESG 목표와 전사적 전략 목표 간 Gap 발생



시스템 부재

-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수작업 및 제한적인 정보 생성 역량
- 인적 오류 및 정보의 적시성 이슈 지속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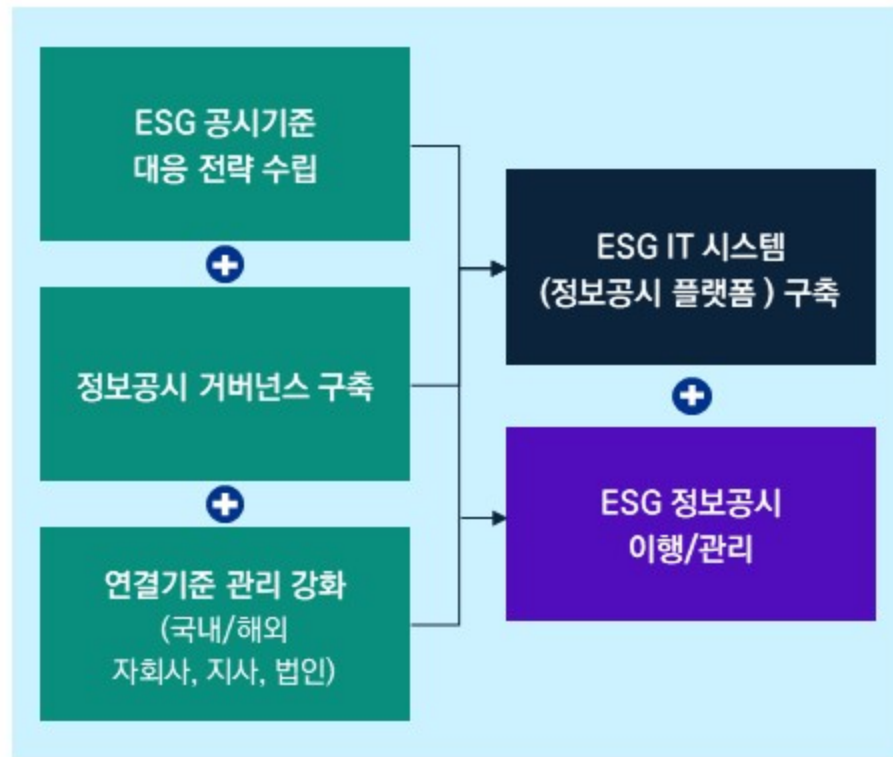
ESG 정보공시 대응 전략 방향

국내 기업이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정보공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시 규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ESG 고도화 병행 추진 필요**

정보공시 의무화 도입



신속한 ESG 정보공시 대응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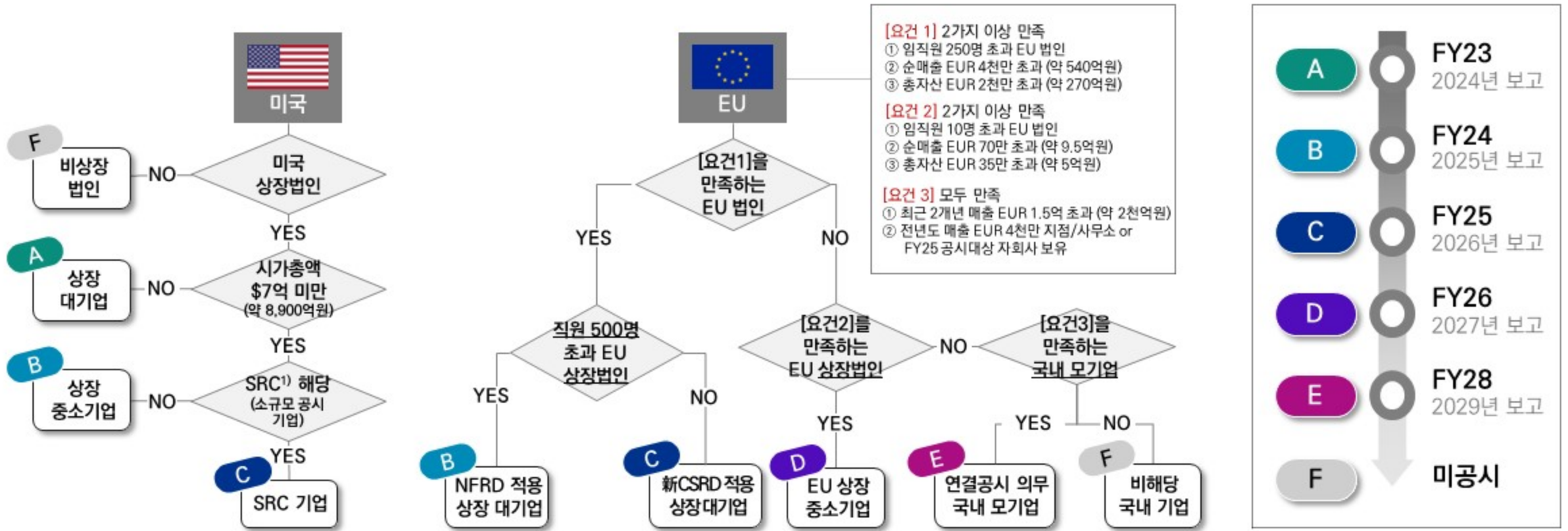


공시 규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ESG 고도화



기업별 상황에 맞는 차별화 대응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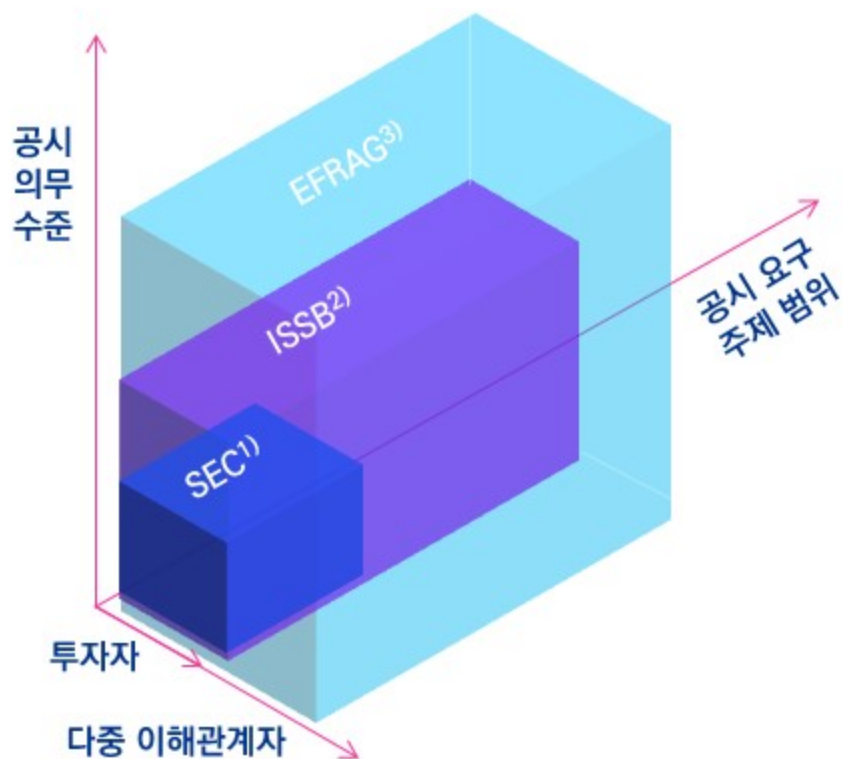
기업별 공시 규제 대상 여부가 차별적이며, 규제별 자사 (해외법인 / 자회사 포함)의 해당 여부 파악 급선무
 → 2 ~ 3개의 기준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기업도 다수 존재



기업별 상황에 맞는 차별화 대응 (2/2)

정보 공시 기준별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 / 수준 및 정보 이용 대상의 범위가 차별적

→ 단일 / 복수 기준 적용 대상 기업에 따라, 선택적 관리 또는 포괄적 관리의 차별적 공시 관리 체계 구축 필요



기후변화 거버넌스 지표 (예시)	SEC	ISSB	EFRAG
의사결정 기구 보유	☑	☑	기후 특화 공시지표 外 ESRS 2 일반 공시 내 포함
의사결정 기구의 책임 범위	☑	☑	
기후 관련 전문가 보유	☑	☑	
주기적 논의 진행	☑	☑	
사업 전략내 기후 리스크/기회 반영	☑	☑	
기후 목표 설정 및 이행 수준 감독	☑	☑	
이사회 또는 경영진 평가에 반영	-	☑	☑
경영진 역할(리스크/기회 평가관리)	☑	☑	-

▪ 단일 기준 적용 대상 기업은 해당 적용 기준에 Focus 한 관리체계 구축

▪ 복수 기준 적용 대상 기업은 복수 기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SEC + ISSB + EFRAG)

ESG 정보공시 대응 로드맵 (1/2)

많이 남지 않은 시간 내 효과적인 정보공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 필요

→ ESG 담당조직주도로 공시항목 관리 및 개선 전략 수립 후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행 추진



ESG 정보공시 대응 로드맵 (2/2)

ESG 정보공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약 3년의 도입 준비 기간 필요

→ 공시 요구사항 대비 현황 진단 및 개선 영역 정비, IT System 구축, 내부통제 절차 및 거버넌스 확립

Workstream	2023				2024				2025				2026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1단계) Readiness 진단 및 대응 전략 수립	ISSB & SEC 공시기준 발표 및 적용				US SEC 적용 (예상) ◆ ◆ ISSB 국가별 채택 (1~1.5년 소요) ◆				US SEC 공시 (예상) 🎯				ISSB, CSRD 공시	
	기존 보고와 차이 및 사별 영향 분석		ESG 공시 기준 Gap 분석		As-is 현황 및 Gap 분석		공시대응 방향성 설정		SEC 공시 대응					
	도입준비 TF 구성		공시 대응조직 구축											
(2단계) IT System 구축	이행 계획 수립				필요 정보 취합 방안 수립									
	조직 R&R 설정				유관부서 R&R 설정									
	공시 시스템 설계 및 구축				ESG 연결공시 IT System 구축									
관련 데이터 생성 및 재구성								관련 데이터 개발, 모니터링, 수립						
(3단계) 내부통제 프로세스 및 R&R 정립	내부통제/관리·감독 체계 정립				통제절차 구축, 경영진 및 이사회 감독 체계 수립, 보상체계 연계								EU/국내 공시	
	시범적용				공시정보 생성/관리 이행 감사인과 협의									

핵심 추진 과제

특히, 국내 기업 관점 ESG 정보공시 대응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 핵심 과제 추진 중요

ESG 정보공시 대응을 위한 3대 핵심 과제

1

정보공시 Governance 구축

- 연결기준 대응 및 재무보고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 해외법인 向 표준화된 ESG Data 취합 체계와 내부통제 프로세스, 감사위원회 관리·감독 체계까지 폭넓은 R&R 정비 필수적

2

주요 이행 과제 및 이슈 대응 (연결기준 공시, 기후관련 재무영향분석 등)

- 그동안 기업이 정성적으로 평가해오던 기후변화로 인한 기회와 위험요인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영향에 대한 합리적 분석 및 공시 중요 (향후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관심있어 할 핵심 정보)

3

ESG 정보공시시스템 구축

- ESG 정보공시의 다양한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시 정보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IT 시스템 구축 필수적 (공시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그린워싱 이슈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Session 2-2

핵심 과제 #1

정보공시 Governance

ESG 정보공시 Governance 구축의 중요성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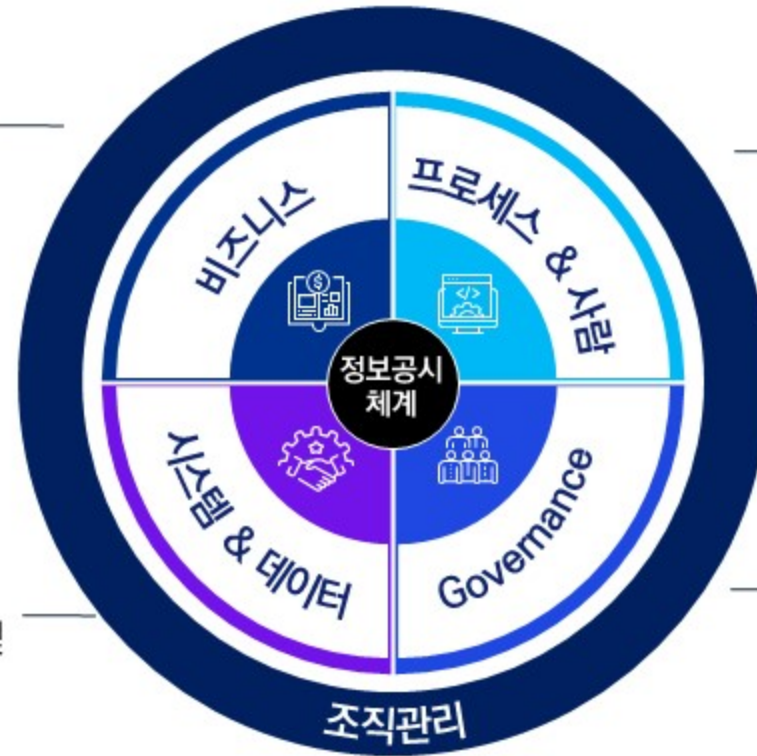
ESG 정보공시 의무화 대응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 사람, 시스템 & 데이터를 비롯하여 이를 전반적으로 Control 하는 **정보공시 Governance 체계 구축이 필수적**

CSO, COO, CRO, CFO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재무영향분석 및 회복탄력성 분석

CTO, 내부감사, 재무부서

조직 전체의 데이터 정의, 식별, 수집 및 유지 관리



CAO, 내부감사 및 재무부서

강력한 통제 구조에 의해 관리되는 운영 및 재무 기능 프로세스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경영진

조직과 최종적인 보고에 대한 감독 책임자



CSO, CAO 및 재무부서

조직 내에서 측정 및 보고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행정 조치, 인센티브 또는 자발적 관행

ESG 정보공시 Governance 구축의 중요성 (2/2)

특히, 공시 기준 적용 시, 데이터 생성 프로세스 / 내부통제 적절성 요구 및 외부 감사 / 인증 대응 중요
 → 사내 ESG Data 생성/집계/승인에 대한 프로세스 및 권한을 공식화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지침 마련 필수

이사회 관리 감독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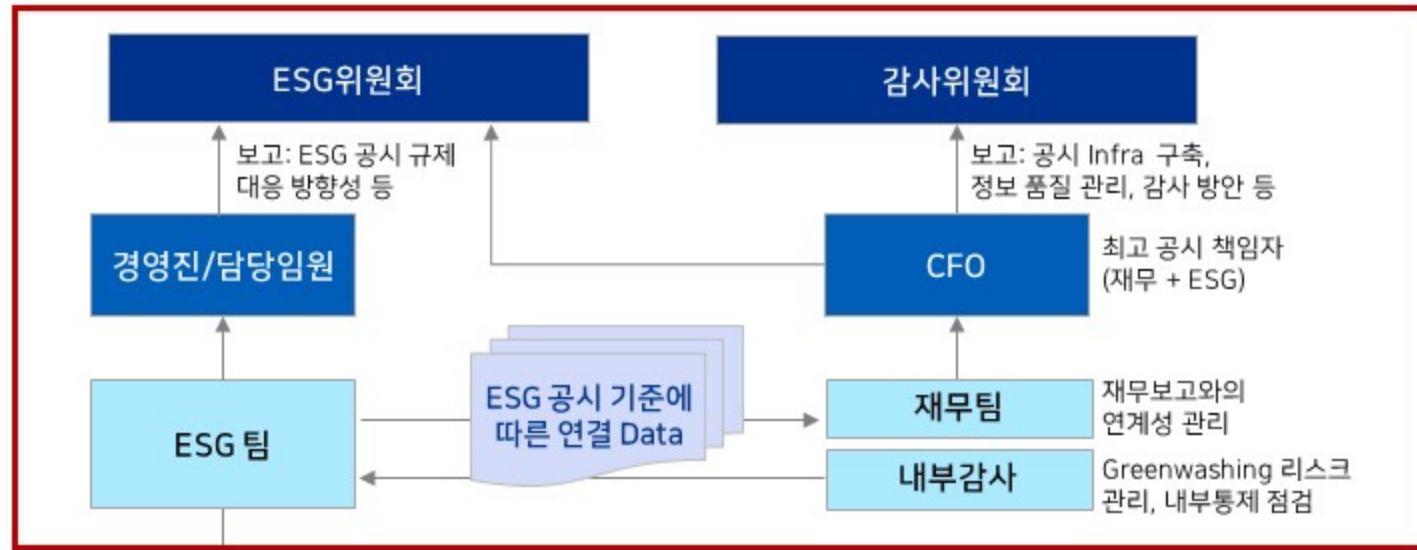
기준	요구사항
 US S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서 관리감독 요구
 EU ES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회에 비재무정보 취합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

ESG 정보 검증 요구

기준	기업 유형	제한적 검증	합리적 검증
 US SEC	대기업	FY2024	FY2026
	중소기업	FY2025	FY2027
 EU ESRS	전체 기업	단계적 도입 (FY2024 대기업부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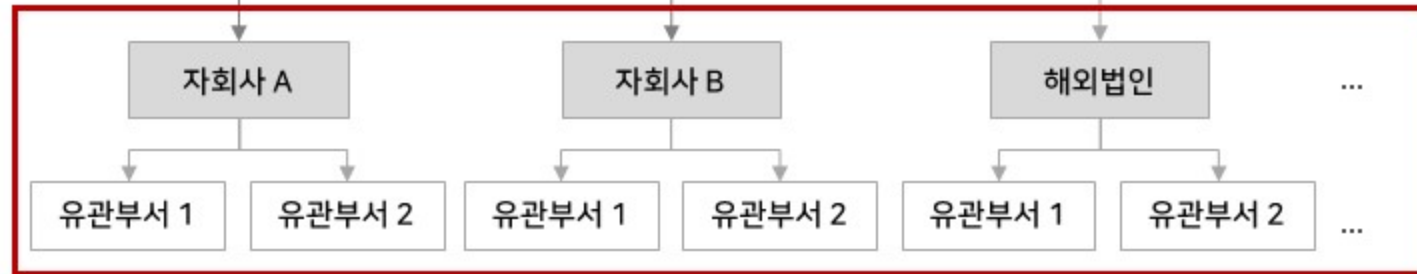
정보공시 Governance 구축 방향

연결기준 대응 및 재무보고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 관리·감독체계까지 폭넓은 R&R 정비** 및 **자회사/해외법인 向 표준화된 ESG Data 취합 체계와 내부통제 프로세스 구축** 필수적



1 정보공시 책임자 설정 및 R&R 정비

- ✓ 사내 ESG 유관부서 - 공시 실무자 - 담당 임원에서 나아가 CFO와 감사위원회 Level의 ESG 정보공시 Governance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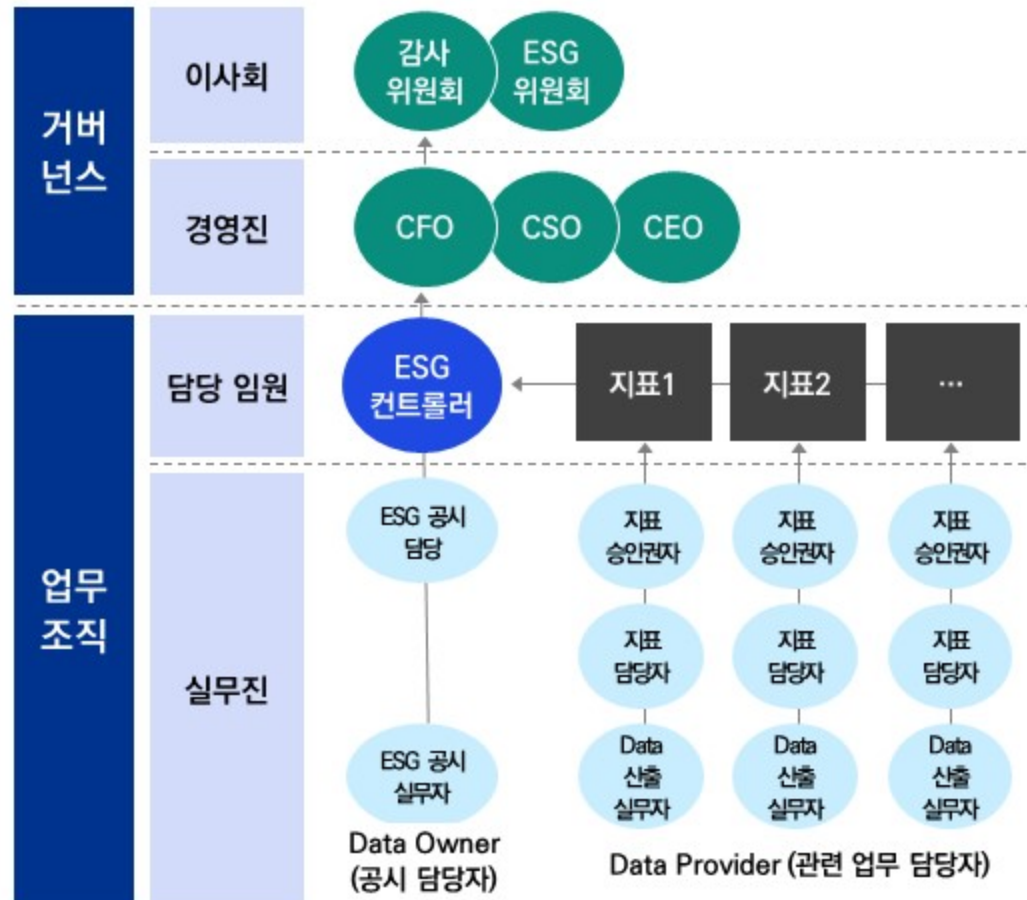


2 자회사 / 해외법인 관리 체계 구축

- ✓ 자회사/해외법인 向 표준화된 ESG Data 취합 체계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 구축

정보공시 Governance 대응 전략: ① 정보공시 책임자 설정 및 R&R 정비

ESG 공시 실무자, 담당 임원, ESG 컨트롤러, CFO로 이어지는 ESG 공시 보고라인 구축 필요



- ✓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감독에서 나아가 ESG Reporting에 대한 최종 감독 기구로서 역할 수행
- ✓ CFO는 공시 최고관리책임자로서 생성된 ESG 정보의 신뢰성과 재무정보 연계성을 관리
- ✓ CFO 산하에 재무 공시 및 ESG 업무 경험을 보유한 ESG 컨트롤러가 ESG 공시 업무 총괄 역할 수행
- ✓ 사내 내부감사 조직은 ESG Data 감사 및 Greenwashing 리스크 관리도 업무 범위에 포함

정보공시 Governance 대응 전략: ② 자회사 / 해외법인 관리 체계 구축

자회사 / 해외법인 대상 정보공시 의무화 대응에 필요한 ESG Data 관리 체계의 신속한 구축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ESG 경영 관리 강화 추진 필요

자회사 / 해외법인 관리 확대 필요성

	공시 규제	규제 시점
 금융위원회	재무회계 수준의 ESG 정보공시	FY25
 IFRS ISSB	재무회계 수준의 ESG 정보공시	FY25
 ESRS	재무공시 연계 비재무성과 공시 및 검증 의무	유럽법인 : FY25 본사 : FY28

✓ 연결 기준 공시 요구

FY25 공시를 위해서는 '23년부터 준비 필요 ('24년까지 연결공시에 필요한 Data 준비 완료 필수)

추진 전략

관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쏠 자회사 및 해외법인 대상 적용 ■ 규제 수준이 높고 규제 적용 시점이 빠른 유럽 법인 / 자회사 우선 관리 강화 추진
관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공시 규제 대응 차원에서 필요한 ESG 데이터 취합 및 리스크 관리 우선 추진 ■ 본사 수준으로 단계적 ESG 관리 범위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ESG 관리 R&R 정립 및 필수 Data 취합 - 중기: 핵심 ESG 영역 관리 강화(환경, 공급망 등)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관점에서 효과적인 ESG 데이터 취합 / 관리를 위해 자회사 / 해외법인 별 Resource 정비 필요

단계별 로드맵

국내 기업들의 현실적이 여건을 고려하여 ESG 정보공시 Governance 구축 시 **단계적 접근** 필요

		'23년 ~ '24년	'25년 ~
		필수 ESG Data 취합 체계 구축	재무보고 수준의 내부통제 프로세스 및 R&R 확립
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Data 취합 체계 구축] 핵심 ESG Data 관련 현황 파악, 공시 지표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주요 정보 연결공시 반영 준비 ▪ [자회사 / 해외법인 관리체계 구축] ESG 이슈 관리 / 소통을 위한 담당자 및 보고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 / 관리·감독 체계 정립] ESG 정보공시 관련 내부통제절차구축, 경영진 및 이사회 감독 체계 수립, 평가 / 보상체계 연계 ▪ [시범 적용 및 개선사항 도출] 공시정보 생성 / 관리 이행, 감사인 협의 등
자회사 / 해외법인	관리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 형태로 운영 (자회사 / 해외법인별 관리 인력 현황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 조직 / 인력화 추진
	중점 관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Data 취합 및 본사 向 제공 (특히, 환경 및 공급망 분야 최우선적 대응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법인 / 자회사 : CSRD 연결기준 공시 준비 ▪ 기타 : 주요 ESG 리스크/기회 관리 강화

Presenter



T. 02. 2112. 0223

E. jinkwikim@kr.kpmg.com

김진귀 부대표

Profile

- 삼성KPMG ESG 정보공시/인증 CoE 리더
- KPMG ASPAC ESG Reporting Working Group
- KPMG Netherlands office 근무
- 한국공인회계사 (KICPA)

ESG Experience *(Selective)*

- 다수의 ESG 정보공시 관련 자문 경험
 - ✓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자문 및 인증
 - ✓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 구축 자문
 - ✓ 사회적 가치 측정 자문
- 내일신문 “김진귀의 ESG 경영“ 정기 기고 (22.1~현재)
- 다수의 재무/공시 시스템 구축 (IFRS/US GAAP 등)

Session 2-3

핵심 과제 #2-1 연결기준 공시 과제

I. 연결기준공시 : 무엇이 문제인가?

>> 연결기준공시 요구사항과 실무적용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는?

>> 현행 보고관행 : 자발적공시 하에 일부 제한적으로 연결기업들 포함

>> 최근 공시기준요구사항: 의무적으로 연결재무제표의 기업들 포함 요구



>> 요구사항: **ISSB S1 문단 37 보고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보고기업은 관련된 **일반목적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하다.**”

ISSB, SEC, ESRS 기준에서는 일반목적재무보고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제표작성시 적용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보고기업 범위설정을 요구

연결기준 공시 이슈

1 연결보고범위 설정에 대한 실무적 적용문제

2 연결기준 중대성 평가

3 지속가능성 정보 생성 및 관리 주체

4 탄소배출량 데이터 취합 및 관리

5 연결 결산일정의 단축

II. 연결기준 이슈: (1) 연결보고범위 설정

>> 모든 연결대상 기업들을 보고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연결기준 이슈 1 - 보고경계

>> WHY 왜 이슈인가?

요구사항 Check Point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보고기업은 관련된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하다.”

현 보고관행은?

- 현행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는 연결기준으로 보고하나,
- ✓ 해외법인은 제외, 국내는 모기업 중심 선택적으로 선정
 - ✓ TCFD 보고서 등 각 ESG 보고서별로 보고범위 상이

Root cause

국내외 ESG공시가 초기 과도기 단계로 국내/해외 연결실체의 공시데이터 부족 및 수집 등 현실적 어려움

>> HOW? 실무적 접근방안 : 보고주제별 중요성 기준설정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보고와 같은 중요성 설정



STEP2 질적기준 보고기업의 고유특성에 대한 고려



예: 자산규모는 작으나 높은 탄소배출량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적특성을 고려하여 Scope 조정

- ◎ 실무적 작성자 적용근거 - ISSB S1 문단 2
"중요성 평가는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이용자들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 실무적 인증자 적용근거 - EER기이언스
"중요성은 각 주제별로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예: 5%미만)"

II. 연결기준 이슈: (2) 연결기준 중대성평가

>> 현실에서는 연결 중대성 평가시 보고주제는 사전적으로 정해 놓고 형식적인 평가절차수행

연결기준 이슈 2 - 연결기준 중대성평가

>> WHY 왜 이슈인가?

☑️ 요구사항 Check Point

...기업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주제를 선정하여야 보고..

☑️ 현 보고관행은?

✓ 중대성평가 시 보고주제는 결정되어 있고, 중대성평가는 다소 형식적인 면이 많음

→ 다양한 방식의 중대성평가 유형이 존재

☑️ Root cause

ESG전략과제와 중대 주제선정을 매핑하여 사전적인 주제를 선정하는 관행

→ 중대성 평가에 따라 보고범위가 변경되며, 인증의무화시점에서 현행 관행에 많은 이슈제기 예상

>> HOW? 실무적 접근방안 : 개별회사별 주제선정 및 연결주제 선정

☑️ 실무적인 현행 연결중대성평가

>> 개별기업단위 중대성평가결과 예시

회사	기후변화	수자원관리	고용다양성	건강 및 안전
점수순위	1	2	4	3
가중점수순위	1	2	3	4
A 회사	V	V		
B 회사	V	V	V	
C 회사	V			V
D 회사		V		

구분	회사	중요	기후 (3개)		수자원 (3개)		고용 (2개)		안전 (3개)	
			점수	가중	점수	가중	점수	가중	점수	가중
A	20%	4	0.8	3	0.6	1	0.2	1	0.2	
B	30%	3	0.9	4	1.2	4	1.2	2	0.6	
C	15%	4	0.6	-	-	-	-	3	0.45	
D	35%	-	-	3	1.05	-	-	-	-	
합계	100%	11	2.3	10	2.85	5	1.4	6	1.25	

Top down 유형

실무적용 유형1 개별회사 선정된 주제의 개수

>> 기후 + 수자원 + 안전

실무적용 유형2 개별회사 선정된 주제의 점수합계

>> 기후 > 수자원 > 안전 > ... 고용

(*) 설정한 임계치에 따라 임계치이상 보고

실무적용 유형3 개별회사 선정된 주제의 가중점수합계

>> 수자원 > 기후 > 고용 > 안전 ...

(*) 설정한 임계치에 따라 임계치이상 보고

Bottom up 유형

실무적용 유형4 개별회사 선정된 모든 주제

>> 기후 + 수자원 + 고용 + 안전

II. 연결기준 이슈: (3) 연결기준 정보생성 및 관리 주체

>> 연결기준 정보생성을 위한 주체 및 관리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미정립

연결기준 이슈 3 - 연결 정보생성 및 관리

>> WHY 왜 이슈인가?

☑️ 요구사항 Check Point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 현 보고관행은?

- ✓ 모기업 ESG부서에서 직접자료를 수집/정보생성 또는
 - ✓ 연결실체에서 정보생성후 결과만 모기업에서 취합
- 연결 실체 내 데이터 생성 및 관리 역할 미 정립

☑️ Root cause

체계적인 지속가능성공시체계부재
(공식화된 연결기준 공시프로세스 및 R&R 미확립)

>> HOW? 실무적 접근방안 : 집중화 vs 분산화에 대한 고려

☑️ 정보의 영향도 및 전문성에 따른 방향성



What?	Where?	Who?	With?	How?
ESG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과 해당 활동들이 Value 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최적의 위치에 대한 평가 (예: 모기업/자회사)	누가 업무를 수행할 지에 대한 고려 (예: 부서결정)	개별 활동들을 다른 활동과 어떻게 통합될지 고려	필요한 프로세스 및 인프라에 대한 고려

방향성 수립을 위한 가장 중요 동인 ESG 전략, 위험관리, 문화 등 기업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 기본적으로 결정 앞선 의사결정에 따라 후속적으로 결정되는 요소

예시				
중대성평가활동	연결모기업	ESG부서	그룹ESG부서통합	프로세스 공식화
기후리스크활동	연결개별기업	리스크부서	재무영향분석	시스템도입



II. 연결기준 이슈: (4) 탄소배출량 데이터 취합 및 관리

>> 탄소배출량 측정은 정보 취합 및 산출에 집중되어, 내부 검증기능은 부족 → 측정결과에 신뢰성 의문 제기

연결기준 이슈 4 - 탄소배출량 데이터 정합성

>> WHY 왜 이슈인가?

☑️ 요구사항 Check Point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 현 보고관행은?

- ✓ 탄소배출데이터 입수가 어려운 경우 근거 없이 제외
 - ✓ 연결기업들은 수기입력에 의존하여 자료제출
 - ✓ 입력데이터에 대한 수기산출 및 체계적 관리 부재
- 연결실체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확신부족

☑️ Root cause

체계적인 지속가능성공시체계부재
(공식화된 연결기준 공시프로세스 및 R&R 미확립)

>> HOW? 실무적 접근방안 : 데이터 작성 프로세스 및 시스템 고도화

☑️ 데이터 작성과정의 고도화

"Are you confident?"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tCO ₂ e	...	123
	Scope 2	tCO ₂ e	...	1,234
	Scope 3	tCO ₂ e	...	123,456

탄소배출량 산출		... 산출오류 → 자동화
모회사 제출		... 수기관리 → 관리시스템
데이터 수집		... 데이터입력오류 → 검증통제
탄소배출원 데이터		... 데이터부재 및 부정확 → 합리적 추정



데이터 취합 및 관리 대응방안

1 연결 데이터 프로세스 공식화

2 데이터 관리 시스템

3 단계별 검증 통제

4 데이터 부재에 대한 합리적 추정

- 외부데이터 구입을 통한 입수 또는
- PCAF 등의 방법을 통한 추정

II. 연결기준 이슈: (5) 연결기준 보고일정

>> 향후 보고기준은 재무보고시점과 동일하게 지속가능보고를 요구하여, 보고일정 단축에 상당한 노력이 요구

연결기준 이슈 5 - 연결기준 결산일정

>> WHY 왜 이슈인가?

☑️ 요구사항 Check Point

...지속가능성보고는 재무보고시점과 동일한 시점에서 보고해야 한다...

☑️ 현 보고관행은?

- ✓ 재무보고는 3월말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 ✓ ESG 평가대응을 위해 6월말 또는 늦어도 7월말까지 발간하여 약 90일 이상의 갭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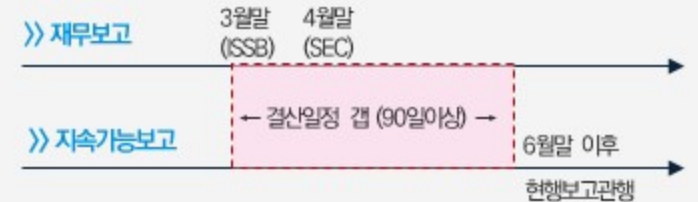
☑️ Root cause

체계적인 지속가능성공시체계부재
(공식화된 연결기준 공시프로세스 및 R&R 미확립)

>> HOW? 실무적 접근방안 : 재무보고와 유사한 지속가능성 공시체계 구축 및 일상화

☑️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내 공시시점 및 위치

구분	SEC	ISSB	ESRS
재무제표와 동일시점?	○	○	○
연차보고서(*)에 공시?	○	○ (공시위치는 자율)	○



(*) 연차 보고서 내 별도 영역에 공시 혹은 MD&A와 같은 영역 참조를 통한 공시

지속가능성공시체계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성 보고의 일상화를 통한 결산일정 단축 필요

☑️ ISSB기준 Carve-out ?

ISSB기준서의 지속가능보고시점을 재무보고와 동일하게 하는 규정을 국내 ISSB기준 도입 시 다르게 결정하는 것은 ISSB기준이 Carve-out되는 것 →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



ISSB기준 도입에 따라 재무보고와 유사한 일정과 신뢰수준의 연결기준 지속가능성 보고에 어려움 예상
→ 연결기준 보고일정 단축을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체계 구축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
→ **준비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음 (1~2년간 시범운영 기간도 반드시 고려 필요)**

III. 연결정보공시 이행을 위한 고려사항

>> 지속가능성 정보는 연결정보공시에 기반하므로 **방법론 측면**에서 다양한 고려가 필요

1

온실가스배출량 산출 범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방법적용

>> 온실가스 배출량 조직경계 설정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는 기업들은 산출 부담완화와 일관성이 있는 보고를 위해 타 기준서와 일관성 있는 방법론 설정 필요 (예: 지분법)

✓ 조직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

SEC	ISSB	ESRS
연결재무제표에 적용된 회계원칙과 동일한 기업 범위, 영업, 자산 및 기타 지분구조에 근거	GHG 프로토콜과 동일 (출자비율기준 또는 통제력기준)	재무제표와 동일 기준이나, 넓은 범위의 기업 가치사슬을 포함 (협력사 등)

✓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상세 공시 요구

- 보고기준
- 접근법 (출자비율기준 vs 통제력기준)
- 방법론 (기초데이터, 배출계수, GWP, 가정 등)
- 연결기업과 관계기업 배출량 구분 공시
- 온실가스배출원별 산출 원칙
- GHG 프로토콜 각 카테고리별 배출량 공시 등

2

Transition relief

>> 기준서 첫 해 적용 완화 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전략적 선택 필요

	FY23	FY24 (최초 적용)	FY25
Scope 1, 2	X	●	●
Scope 3	X	X	●
GHG Protocol*	X	X	●

* Scope 1~3 측정방법론 사용 비교공시 면제 어려운 공시요구 1년 유예

- ✓ 기존 지속가능보고서상 공시하는 Scope 1~3 배출량과 관계는?
- ✓ 현재 자율 공시하는 Scope 1~3 배출량 산출 방법론을 공시의무화 이전에 고도화 할 필요성 (신뢰성/일관성 제고)
- ✓ 비교공시 면제가 반드시 좋은 선택인가?

III. 연결정보공시 이행을 위한 고려사항

3 기후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재무영향 산출방법론 개발 노력

» 현재 기후위험관련 재무영향 산출방법론은 초기 단계로 실제 이행에 많은 노력이 필요

재무영향 분석 결과는 투자자의 주요 관심정보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으로 중요한 Insight를 제공

- 연결 재무영향 분석 approach (연결F/S 기반 재무영향 추정 vs 자회사별 F/S 기반 재무영향 추정 후 가상적 연결)
- 재무영향 분석 Entity 범위 및 항목 결정
- 기업별/업종별 상세 Pathways Library 구축
- Financial assumption DB 구축
- 재무영향 분석 방법론/Template 설계
-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절차 구축

4 산업별 SASB기준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적용

» 현재 국제화를 위해 개정 중인 SASB기준은 궁극적으로 ISSB 산업별지표로 흡수될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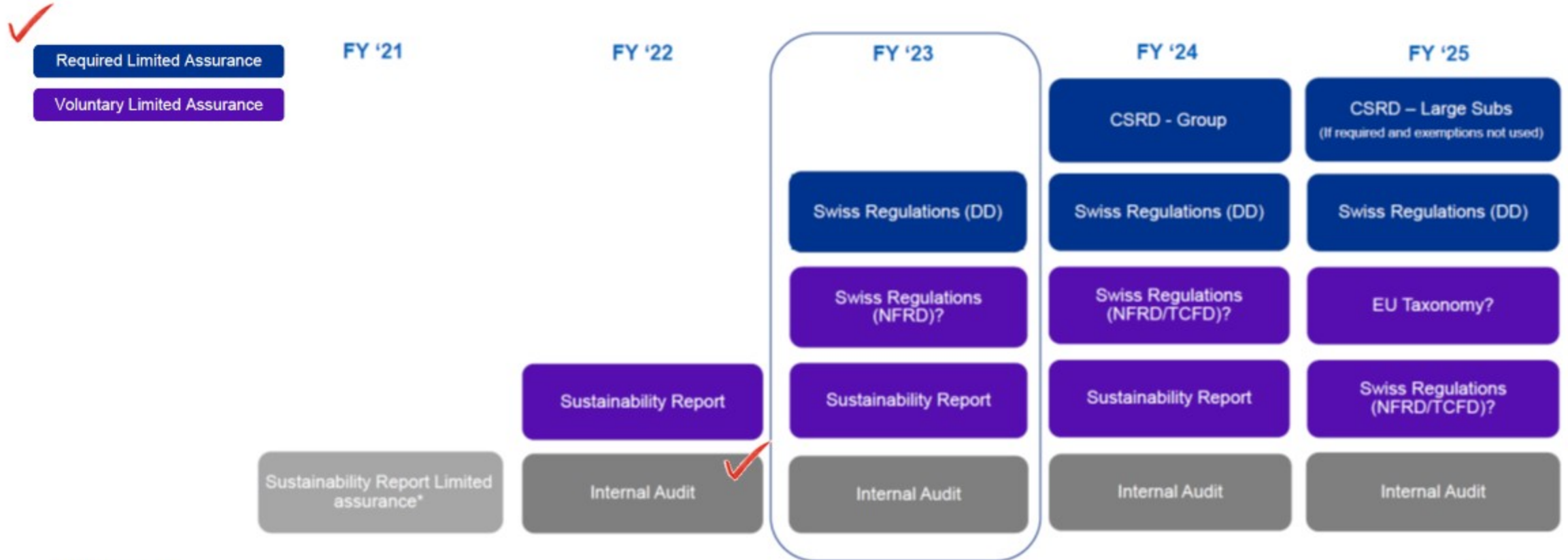
→ 개정 기준은 SASB stand alone성격으로 ISSB S1기준 적용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

III. 연결정보공시 이행을 위한 고려사항

>> 정보공시 체계 구축과 더불어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Assurance 로드맵 수립 필요 (인증 수준/대상/범위에 대한 단계적 확대)

Case study

ESG assurance evolution



Presenter



T. 02. 2112. 0462

E. jeonghwanhwang@kr.kpmg.com

황정환 상무

Profile

- ESG 정보공시/인증 CoE 팀장
- KPMG ASPAC Regional ESG Assurance Head
- 한국공인회계사 (KICPA)

ESG Experience *(Selective)*

- ESG 정보공시 및 인증 관련 자문 경험
 - ✓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자문
 - ✓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 ✓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 구축 자문
- 외부감사 및 재무/공시 시스템 구축

Session 2-3

핵심 과제 #2-2

기후관련 재무영향분석

I. 기후관련 재무영향분석: 요구사항

» 기후 위험을 재무적으로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

	단기적 관점	Time Horizon	중장기 관점
	US SEC 기후법안		ISSB S2 기후공시
재무영향 공시 재무제표 영향분석 (Reasonable & Probable assumption)	현행 재무제표 항목들과 연계된 특정 기후관련 재무제표 지표들을 “주석”에 공시 ① 재무적 영향지표 ② 지출지표 ③ 재무적 추정과 가정 현재 연결재무제표 보고된 항목에 대한 실제영향을 미쳤거나 잠재적으로 미칠 위험과 (기회) 공시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단기]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영향 정도 [중기] 중요하게 장부금액이 조정될 유의적인 위험 [장기] 시간이 지남에 따른 재무상태의 변화
기후 회복력 시나리오 분석 (What-if 분석)	기후 관련 위험의 잠재적인 미래 변화에 따른 비즈니스 전략의 탄력성 정보 ① 시나리오 분석 관련 정보 (ex. 1.5C 시나리오 등) ② 매개변수, 가정 및 분석적 선택, 그리고 각 시나리오 하에서 비즈니스 전략에 예상되는 주요 재정적 영향		기후 관련 변화, 개발 또는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 전략의 회복력에 대한 정보 ① 기후회복력 분석결과 ② 기후시나리오 분석관련 정보 (시나리오종류, 가정 등)

“재무영향 분석은 향후 투자자의 최우선 관심 정보”



① 재무적 영향지표 (예시)

기후 관련 사건 및 전환 활동의 영향에 대한 공시

단위: \$	물리적 위험		전환 위험	
	부정적 영향 총계	긍정적 영향 총계	부정적 영향 총계	긍정적 영향 총계
매출	XXX	XXX	XXX	XXX
매출원가	XXX	XXX	XXX	XXX
유형자산 처분이익	XXX	XXX	XXX	XXX
손상차손	XXX	XXX	XXX	XXX
고정자산	XXX	XXX	XXX	XXX

기후 관련 사건 및 전환활동이 미치는 영향공시

항목	연결재무제표 금액	Event A, B 영향	전환 활동 D 영향	영향 절대값	비율
매출원가	\$10,000	-\$300	+\$90	\$390	3.9%

II. 재무영향 이슈: 무엇이 문제인가?

>> 기후관련 재무영향분석은 '기후위험 파급경로 식별과 재무위험 측정방법론' 개발이 실무적으로 어려움

재무영향 이슈 - 기후위험 Path 식별 및 측정방법수립

>> WHY 왜 이슈인가?

☑️ 요구사항 Check Point

“기후위험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에 대한 측정 및 공시요구”

☑️ 현 보고관행은?

- ✓ TCFD권고안의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내 기후위험에 대한 시나리오분석 및 재무영향분석결과에 대해 제한적으로 공시
- ✓ 계정과목별 재무영향에 대한 공시준비 부족

☑️ Root cause

- ✓ 물리적/전환위험별 재무제표에 미치는 path정의 부재
- ✓ 재무영향 측정 방법론에 대한 정립부재
- ✓ 충분한 데이터수집의 어려움

>> HOW? 실무적 접근방안 : 기후위험의 재무영향 path library정립 및 단계별 측정방법개발

☑️ 기후위험의 재무적측정을 위한 실무적인 과제



이슈 #1 기후위험의 동인과 재무영향 파급경로는?

- “안전성에 대한 확신부족”
- 기후위험 Path Library 수립

이슈 #2 계정과목 수준의 재무영향측정방법은?

- 일부항목에 대한 분석
- 재무중심의 분석도구 단계적 내재화



- 現 실무적 관행 : 기후회복력 중심의 일부 중요한 물리적/전환위험이 EBITA에 미치는 수준 분석
- 재무분석요구사항 : 재무제표 개별항목별 기후관련 재무영향분석 수준 요구

II. 재무영향 이슈: (1) 기후동인과 재무영향 파급경로

이슈 #1

>> 기후 동인이 재무적 동인으로 이어지는 **완전성** 있는 경로를 재무제표 항목별로 정의하여 재무 영향 Path library 구축

기후동인부터 TOP-DOWN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식별을 위해 **회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분석 (단/중/장기)**”

유형	기후변화 관련 위험 ¹⁾	잠재적 재무 영향
물리 위험	정책 및 법률	
	-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 인상 - 배출 보고 의무 강화 - 기존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의무와 규제 - 피스 가능성	- 영업 비용의 증가(예: 규정준수 비용 상승, 보험료 증가) - 정책 변경으로 인한 기존 자산의 상각, 손상 및 조기 처분 - 벌금과 판결에 따른 비용 증가 그리고/또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 감소
	기술	
	-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한 기존 제품 및 서비스의 대체 - 신기술에 대한 투자 실패 - 저탄소 기술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	- 기존 자산의 상각 및 조기 처분 -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 감소 - 대체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 기술 개발에 대한 자본 투자 - 새로운 관행과 프로세스의 채택 및 확산 비용
시장	- 고객 행동의 변화 - 시장 신호의 불확실성 - 원자재 비용 상승	-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요 감소 - 투입 가격(예: 에너지, 물)과 산출물 요구사항(예: 폐기물 처리)의 변화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 에너지 비용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 - 수익 구성 및 수익원의 변화로 인한 수익 감소 - 자산 가격의 재조정(예: 화석연료 매장량, 토지 가치평가, 중립 가치평가)
	홍판	
	-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 - 부문의 낙인화 - 이해관계자의 우려 또는 부정적 피드백 증가	- 상품 및 서비스의 수요 감소로 인한 수익 하락 - 생산능력의 감소(예: 계획 승인의 지연, 공급망 중단)로 인한 수익 하락 - 인력 관리 및 계획(예: 인력 유지, 직원 유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수익 하락 - 자본의 이용 가능성 감소

TOP DOWN

재무범주별 재무제표항목부터 내재된 기후요소 BOTTOM-UP

“**현재 재무제표개별항목에 잠재된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 에 대한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분석”

- Questions at the business level
- Long-lived assets
- Leases
- Research and development
- Impairment of nonfinancial assets
- **Financial Instruments**
- Power purchase agreements
- Contingencies and Insurance
- Revenue and Inventories
- Compensation and benefits
- Income taxes and related incentives
- Carbon credits
- Acquisitions and restructuring
- Fair value measurement and projections
- Presentation and disclosure

Key questions
Will debt instruments containing an ESG feature be issued (e.g. a sustainability-linked bond)? 재무증권이 ESG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Does the company provide financing to entities in industries that are susceptible to climate risk? 기후리스크에 민감한 산업에 기업들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가?
Do the company's climate-related commitments require changes to the measurement or classification of debt securities? 기후관련 약정에 따라 재무증권의 분류 및 측정 변경이 필요한가?
Have the underlying investees associated with equity securities without readily determinable fair values or equity method investments experienced losses due to extreme weather events? 비시장성 리투자회사가 기상이변으로 인한 손실을 입었는가?
Has the company provided guarantees to parties that are susceptible to climate risk? 기후리스크에 민감한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보증계약을 제공했는가?
Has climate affected the probability of forecasted transactions occurring? 기후가 현금흐름위험회피 미래 거래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는가?
Does the company hold over-the-counter derivative instruments in which the counterparty is in an industry susceptible to climate risk? 기후리스크에 민감한 산업의 거래상대방과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가?

BOTTOM UP

(출처: KPMG - climate risks in financial statements)

(출처: 2017 TCFD 최종보고서)

II. 재무영향 이슈: (1) 기후동인과 재무영향 파급경로

이슈 #1

>> 계정과목단위에서 Pathways signposts를 그려보고 가능한 경로를 파악하고 재무적 영향여부에 대한 고려

- 재무제표 개별항목
- 매출액
- 매출원가
- 감가상각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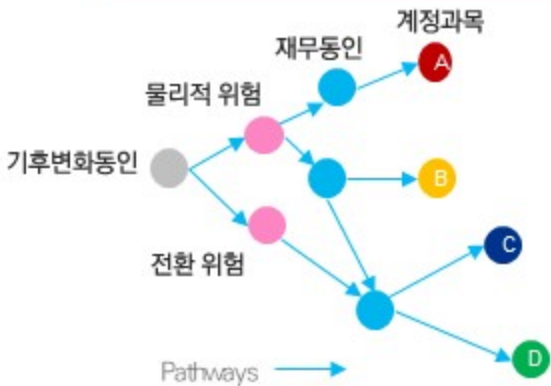
>> 계정과목별 재무영향 파급경로 예시

기온 상승 → 원재료 가격 상승 → 판매 단가 상승 → 매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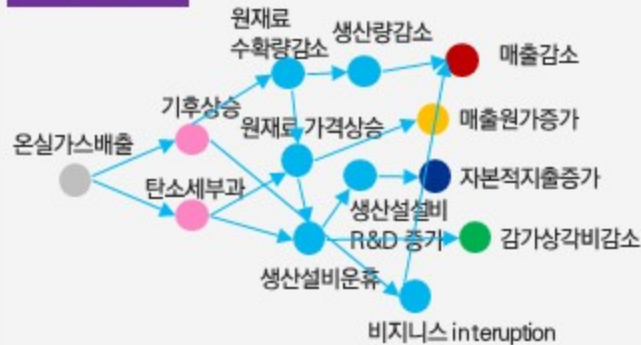
탄소세 부과 → 원재료 구입 가격 상승 → 구입 단가 상승 → 매출 원가 증가

홍수 범람 빈도 증가 → 생산 설비 손상 → 잔존가치 감소 → 내용연수 감소 → 감가상각비 증가

Pathways Library signposts



예시: 맥주회사



Pathway Library 예시

유형	기후관련 위험/기회	번호	재무적영향	범주	시나리오	계정과목	경로	영향도
정책과 규제	탄소배출량 가격증가	1	탄소세 비용증가	위험	2도	매출원가	탄소세-원재료가격-매출원가	높음
		2	전탄소대체에너지 사용비용증가	위험	2도	매출원가/판매비	에너지구입비	낮음
기술	저탄소기술 전환 비용	3	전탄소기술 R&D	위험	2도	연구개발비	정부규제-연구개발비	중간
..	...	-



✓ 명확히 정의된 재무영향 path library는 재무영향산출시 proxy 모형으로 엑셀로 모델링 가능

II. 재무영향 이슈: (1) 기후동인과 재무영향 파급경로

이슈 #1

>> 맥주를 생산하는 A사 재무영향 분석 사례

기후변화 동인에 따른 농산물 수확량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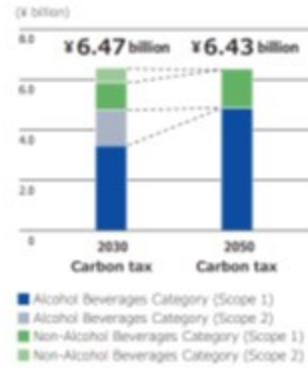
2050년 각 시나리오별 예상 수확량 (현재 수확량 대비)

Item	Country of Production	2050년 각 시나리오별 예상 수확량 (현재 수확량 대비)		
		Under 2°C Scenario	4°C Scenario	
Main Raw Materials of Beer Category Barley	Canada (Spring)	+1%	+2%	
	France (Spring)	-10%	-18%	
	France (Winter)	-5%	-10%	
	Eastern Region of Germany (Winter)	+8%	+19%	
	Australia	-7%	-13%	
	Czech Republic (Spring)	+18%	+7%	
	Hungary (Spring)	+4%	+9%	
	Northern Region of Italy (Winter)	+10%	+14%	
	Southern Region of Italy (Winter)	-8%	-11%	
	Poland	-9%	-15%	
Hops	Czech Republic (Yield)	-5%	-7%	
	Czech Republic (Quality)	-13%	-25%	
Raw Materials of Non-Alcohol Beverages and Other Alcohol Beverages Categories Sugar	Australia	+1%	+2%	
	Brazil	+3%	+12%	
	India	0%	-3%	
	Japan	+2%	+21%	
	Thailand	-26%	-45%	
	Raw milk	Australia	-9%	-19%
		United States	-6%	-11%
		Japan	-2%	-3%
	Coffee	New Zealand	-2%	-2%
		Brazil	-8%	-23%
Colombia		-4%	-15%	
Guatemala		-11%	-17%	
Tanzania		-2%	-9%	
Ethiopia		-8%	-25%	
Vietnam		-9%	-24%	
Indonesia	-10%	-30%		

재무동인에 따른 재무적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매출원가에 대한 재무영향 (원료구입원가)

Impact on Production Co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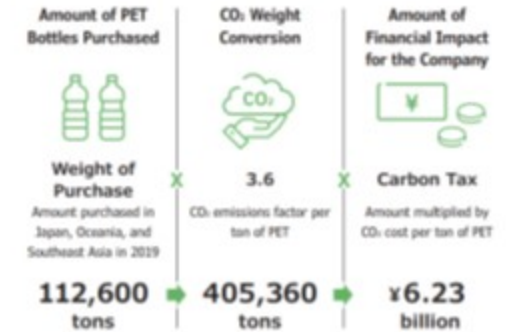
Increase in costs due to decreased yields of main agricultural raw materials

Corn **¥1.97 billion**
Coffee **¥2.66 billion**
(In 2050, under the 4°C Scenario)

- Cooperate with supplier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 Support local farmer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매출원가에 대한 재무영향 (탄소세로 인한 PET병원가)

Impact of Fluctuating PET Bottle Prices



Increase in production costs (Scope 1 and 2) due to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2030 **¥6.47 billion**
2050 **¥6.43 billion**

- Reduce amount of CO₂ emissions
- Utilize in-house technology through co-creation with stakeholders

Increase in cost of PET bottles when the cost of carbon tax is transferred

¥6.23 billion
(In 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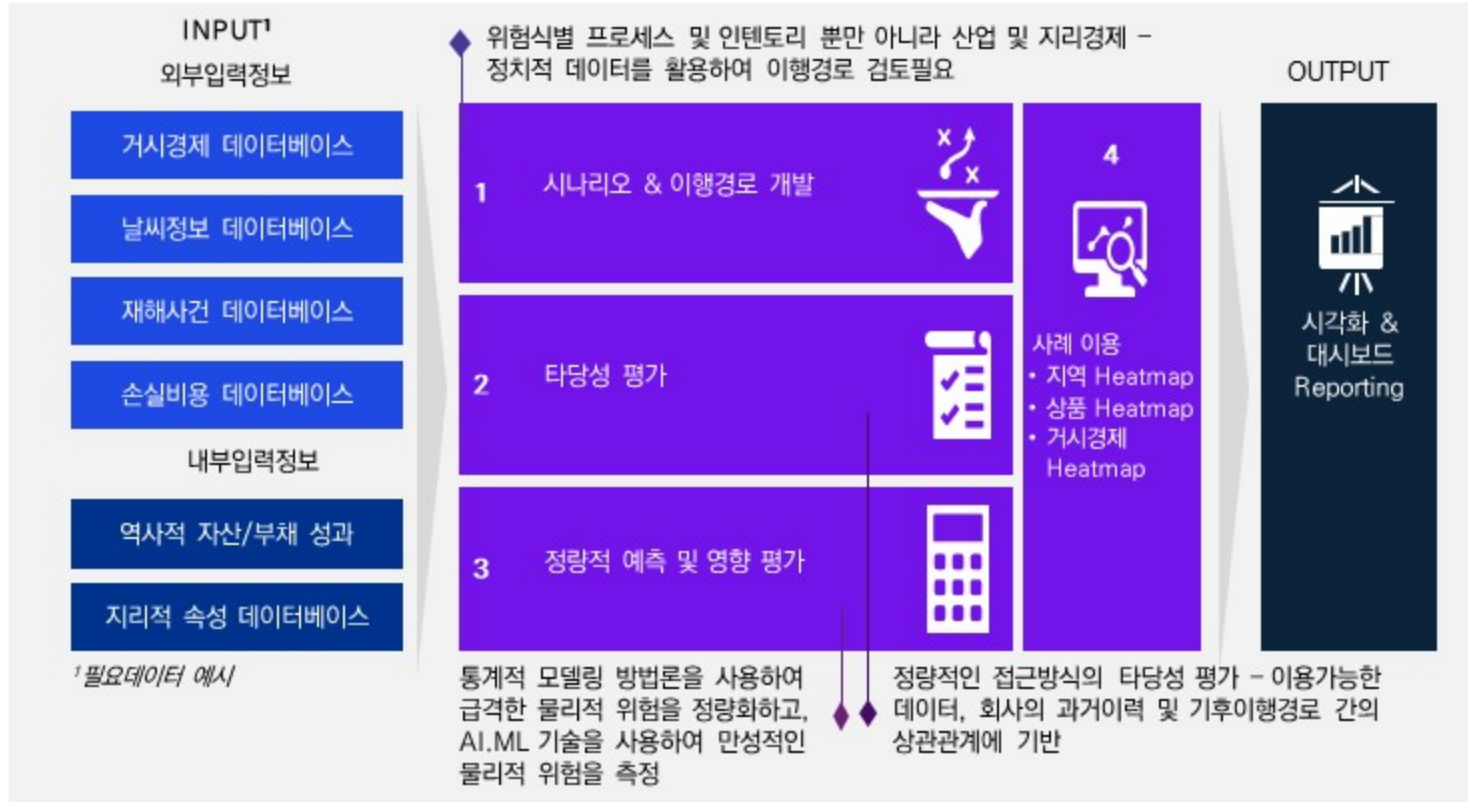
- Switch to recycled PET bottles
- Reduce the weight of PET bottles

II. 재무영향 이슈: (2) 계정과목 수준의 재무영향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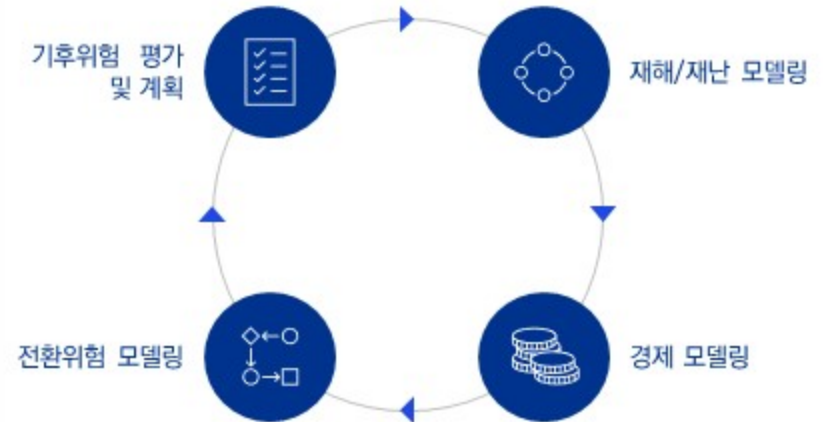
이슈 #2

>> 기후위험에 대한 재무영향 측정 접근방식

재무영향측정을 위한 접근방향 예시



재무영향 모델링 구성 업무흐름



II. 재무영향 이슈: (2) 계정과목 수준의 재무영향측정방법

이슈 #2

KPMG 방법론 예시

>> 일반적으로 물리적/전환위험의 효과를 구분하여 **통합평가모델**을 통해 추정후 **재무영향모델**을 통해 계정단위로 환원

STEP 1 시나리오와 데이터준비

데이터분석에 사용될 기후시나리오 선택

기후 시나리오 선택

회사 특정 데이터

STEP 2 통합모델: 전환 위험 및 물리적 위험계산

통합평가모델(IAM)을 사용하여 예상되는 미래 온난화와 경제 변화를 기반으로 가능한 **전환위험 및 물리적 위험**을 계산

경제적 예측
선택된 국가 및 부문에 대한 저탄소 전환의 경제적 영향을 계산

물리적 예측
시뮬레이션 및 분포 곡선을 사용하여 극한 기후 현상, 모델링 확률 및 심각도의 영향을 계산

STEP 3 재무영향모델: 재무영향으로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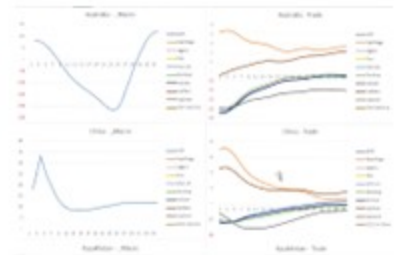
해당 위험 또는 기회를 재무제표 계정과목별로 재무영향모델을 통해 정량화

비즈니스 모형
2050년까지 경제 및 물리적 예측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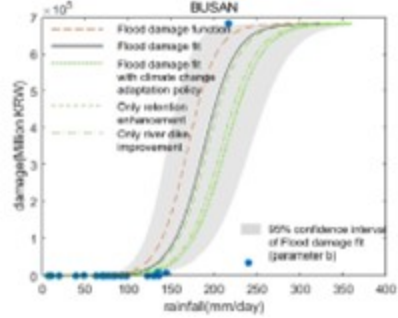
대용 모형
공급망 또는 금융배출량 등 데이터가 없는 경우



저탄소이행 제약하의 전환위험 프로파일



재해사건별로 물리적위험 프로파일



전환위험 재무영향 예시

손익계정항목	가격	수량
홍수위	생산단위당 가격	부문생산 및 수요
탄소배출비용	배출단위당 탄소가격	
직접노동단위 및 비용	직접노동비용	
주유비	리터당 비용	
고정 및 기타 변동비	업스트림부문의 단위당 부문생산비	

III. 재무영향분석결과

>> 재무영향분석은 복잡하지 않은 경우 엑셀로 구현이 가능하나 체계적관리를 위해 시스템화가 필요

모델링을 위한 설정 예시

The screenshot shows a software interface for setting up a financial model. It includes sections for:

- 모형 설정 (Model Settings):**
 - 상당성이 없는 계항 (Non-current assets/liabilities): A table with columns for '계항 1' and '계항 2', and rows for '잔액' (Balance), '변동상당' (Change in equity), and '잔액 2' (Balance 2). Values are 70%, 80%, 40% for the first row, and 20%, 20%, 40% for the second row.
 - 각주상당 계항 (Equity items): A dropdown menu set to 'Asset by Asset'.
 - 물리적 자산 대위대 사용 (Use of physical asset substitution): A dropdown menu set to 'Yes'.
- 시나리오 (Scenario):**
 - 한국어로 시나리오 (Scenario in Korean): A dropdown menu set to 'Policy - K'.
 - COE 시나리오 (COE Scenario): A dropdown menu set to 'KOR'.
- 물리적 위험 (Physical Risk):**
 - 물리적 위험을 무시하십니까? (Ignore physical risk?): A dropdown menu set to 'No'.
 - 물리적 위험기간(연평균치) 표 (Physical risk period (annual average) table): A dropdown menu set to 'Yes'.

모델링시 고려사항

- 재무영향 모델링을 위한 시나리오별/ 물리적위험 변수 등을 설정하여 상황별 시뮬레이션
- 재무영향분석단위를 개별자산별/그룹별/회사별로 구성하여 영향도를 구성

재무영향분석결과 예시

The screenshot displays a financial statement with columns for years from 2023 to 2050. The rows are categorized into:

-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
 - 순익 (Net Income): Values range from 1,510,000 in 2023 to 1,847,000 in 2050.
 - 순무보증소득 (Net guaranteed income): Values range from 375,000 in 2023 to 476,000 in 2050.
 - 순자산소득 (Net asset income): Values range from 1,135,000 in 2023 to 1,371,000 in 2050.
 - 순이익 (Net Profit): Values range from 1,160,000 in 2023 to 1,371,000 in 2050.
- 재정상태 (Financial Position):**
 - 순자산 (Net Assets): Values range from 2,940,000 in 2023 to 3,841,700 in 2050.
 - 순이익 (Net Profit): Values range from 122,700 in 2023 to 175,470 in 2050.
 - 순무보증 (Net guaranteed): Values range from 294,000 in 2023 to 476,000 in 2050.
 - 순자산 (Net Assets): Values range from 2,646,000 in 2023 to 3,365,700 in 2050.
- 현금흐름 (Cash Flow):**
 - 순이익 (Net Income): Values range from 1,160,000 in 2023 to 1,371,000 in 2050.
 - 순무보증 (Net guaranteed): Values range from 375,000 in 2023 to 476,000 in 2050.
 - 순자산 (Net Assets): Values range from 785,000 in 2023 to 895,000 in 2050.

모델링시 고려사항

- 2050년까지 물리적/전환위험에 따라 현재가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생성
- 현재 재무제표와 연도별 가상재무제표간의 재무영향에 대해 차이분석

Presenter



T. 02. 2112. 0992

E. seungkeunlee@kr.kpmg.com

이승근 상무

Profile

- 삼성KPMG ESG 비즈니스 그룹 솔루션 개발 리더
- 제조 Digital 혁신 리더

ESG Experience *(Selective)*

- KPMG ESG LINC 개발 리드
- ESG Digitalization 전략 수립 자문
- 대형 글로벌 기업 Digitalization Agenda 개발 자문
 - ✓ Digital 전환 전략 수립 자문
 - ✓ AI/분석 플랫폼 구축 수립 자문
 - ✓ 제조기업 Digital 기술도입 마스터플랜 자문
 - ✓ Digital Supply Chain 구축 자문

Session 2-4

핵심 과제 #3

ESG 정보공시시스템



ESG 정보 공시의 뉴 패러다임 대응 플랫폼

KPMG ESG L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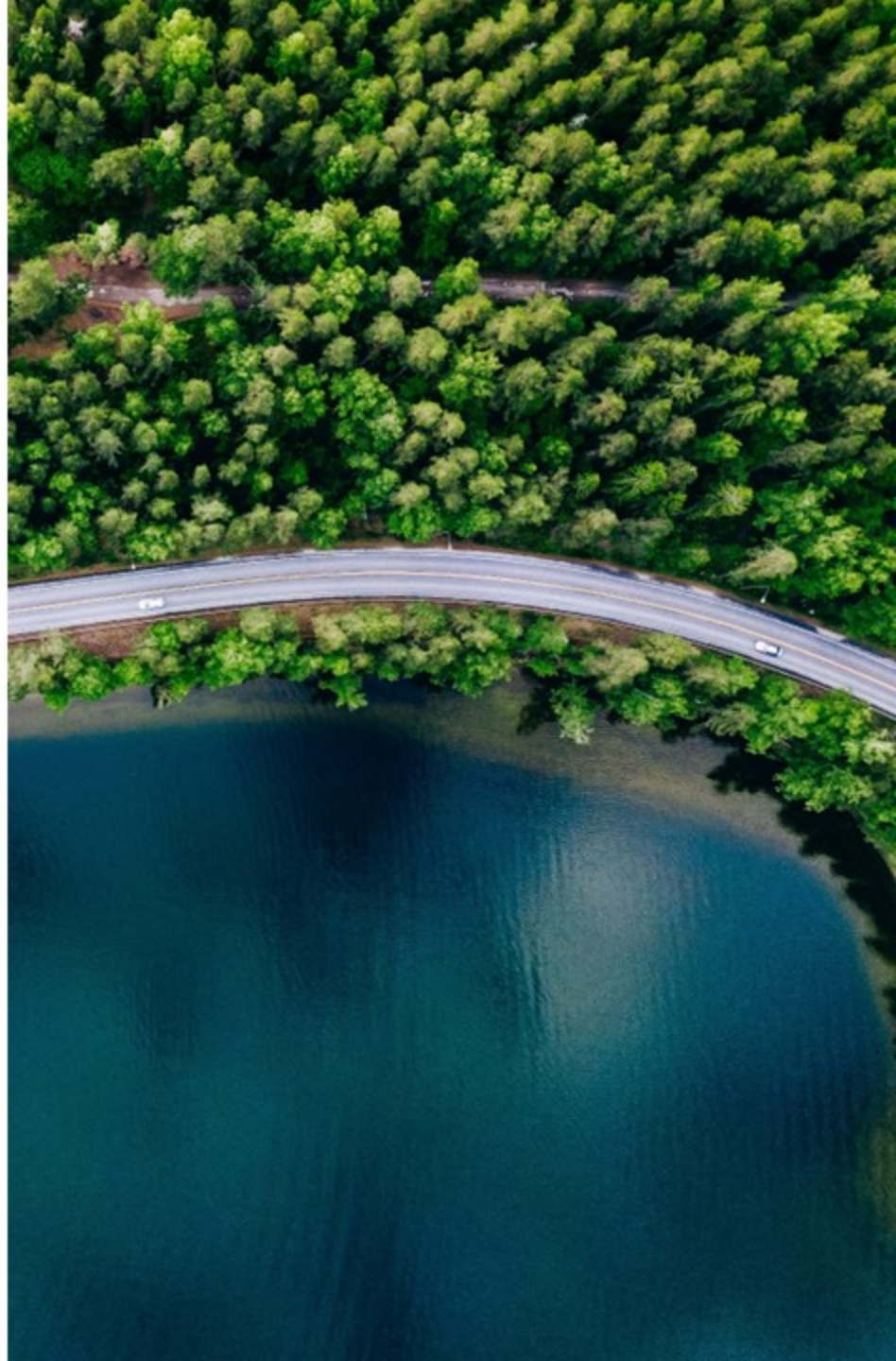
LINK + Corporate Sustainability





KPMG ESG LINC 개요

공시대응, 기업 전략 도출
나아가 기업 경쟁력 확보로의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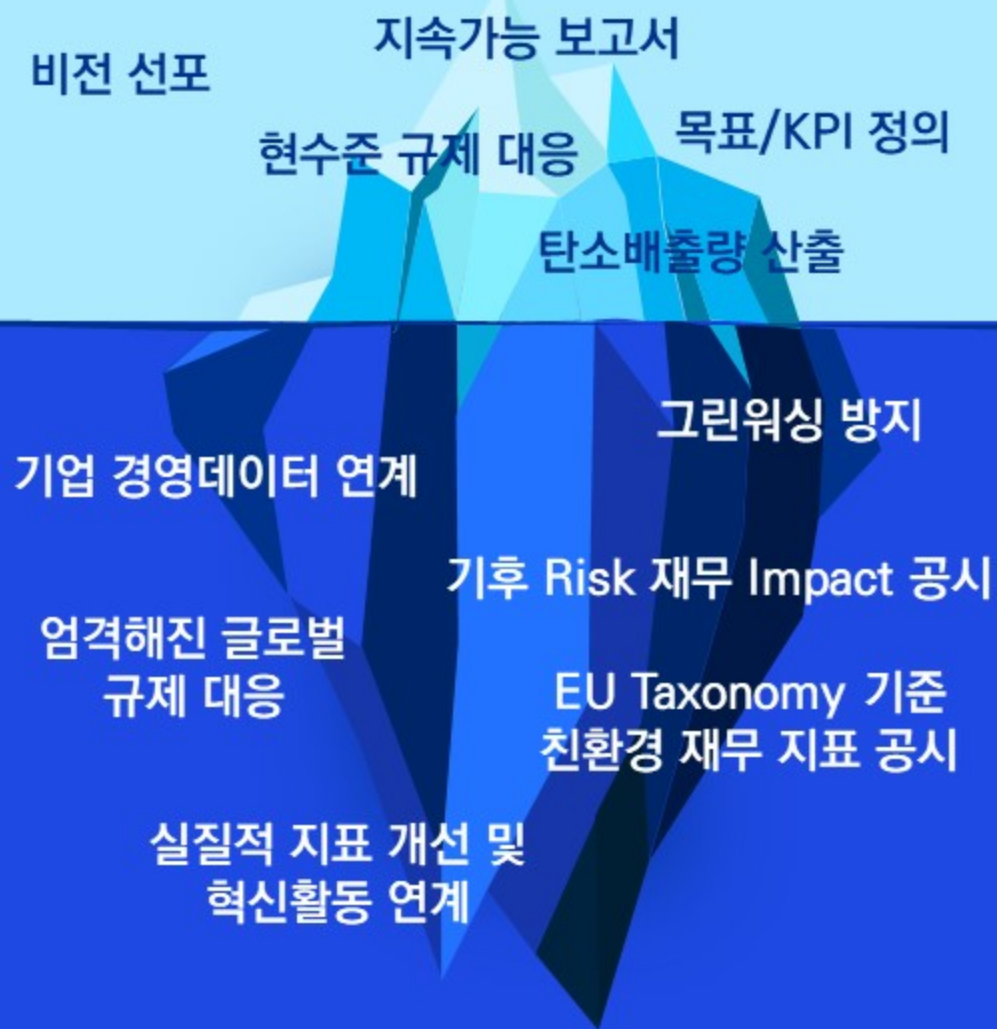


ESG 정보공시의 뉴노멀시대 대응

매뉴얼로 대응 가능한 수준

ESG 공시 지원 시스템 필수 영역

ESG Agenda



다양한 규제와 공시체계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재무적 판단을 토대로 한 기업 경영 가치 창출을 위한 플랫폼

Compliant



데이터 기반 규제대응

글로벌 규제의상시 대응을 위한 표준 ESG 지표SET 기반의 데이터 거버넌스와구조

Strategic



재무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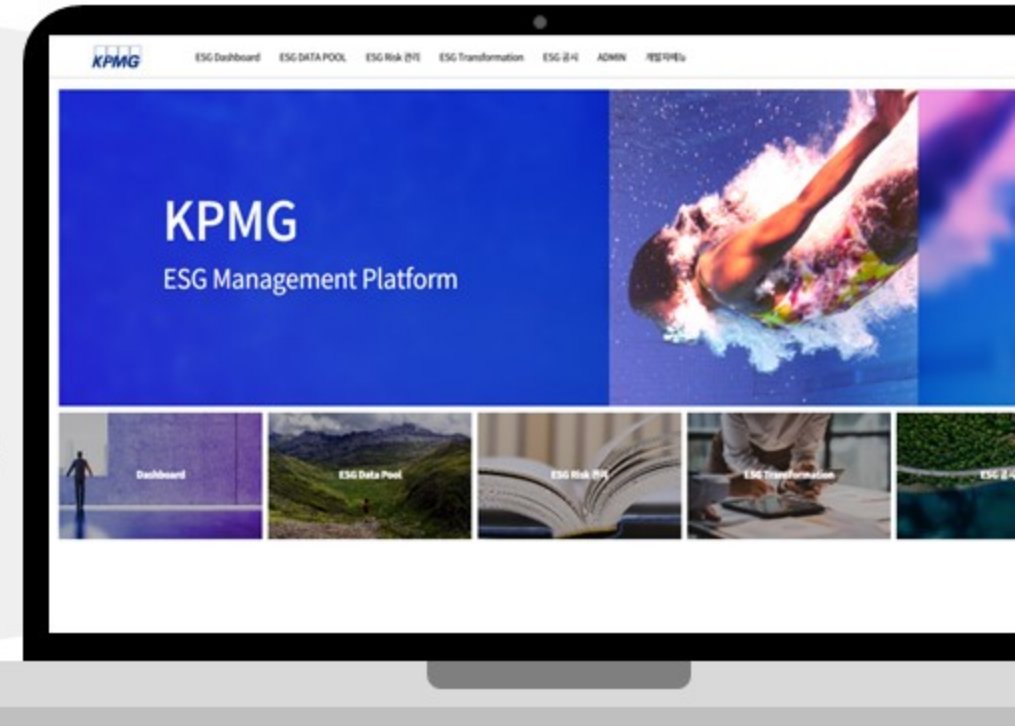
전환/물리적 이슈에 따른 리스크/기회의재무적 가치 판단과 경영 전략 수립 지원

Transform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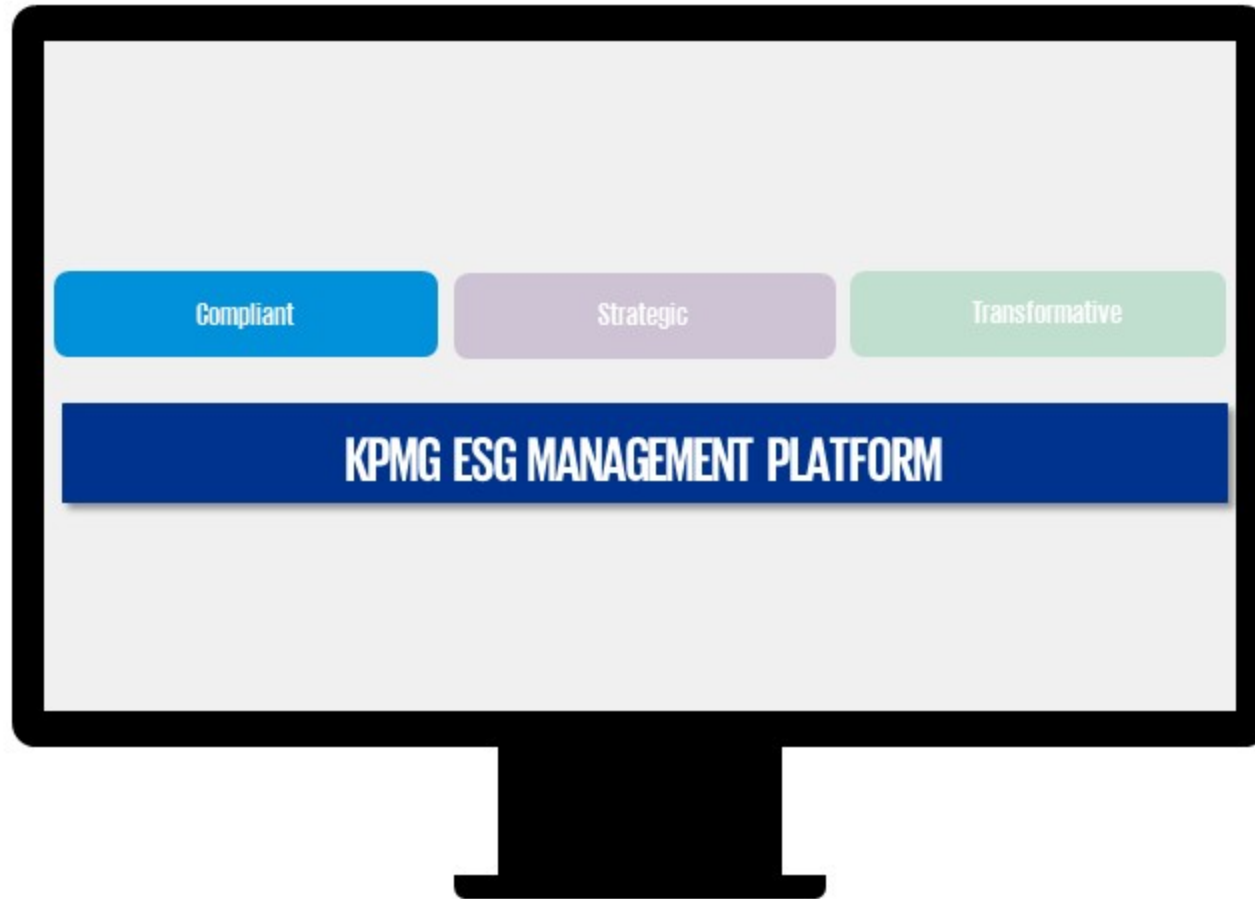


실질적 ESG 개선

기업 내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량 성과 중심의 KPI 및 ESG 과제 관리 프로세스



영상 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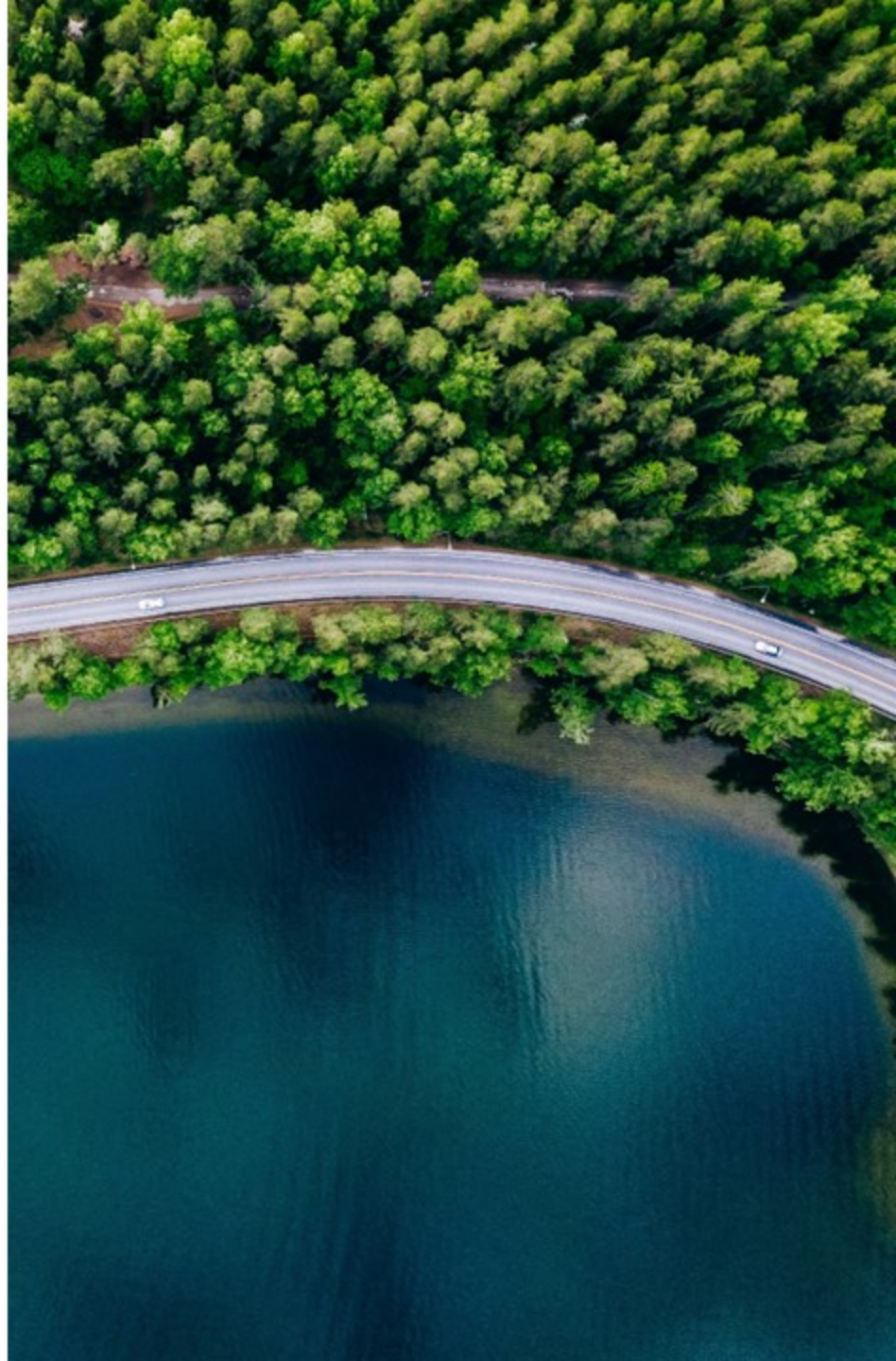
Compliant

Strategic

Transformative

KPMGESGLINC 차별화 요소 ①

상시 증빙 가능한 데이터 중심의 공시 대응





단순 ESG Reporting Tool 만으로는 이슈 해결이 불가능하며 Data Eco-System이 필요

ESG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

데이터 가시성

ESG 이슈 대응의 실시간 현황 파악이 어렵고 ESG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영 의사 결정이 불가능함

데이터 관리 방향성

다양한 공시 표준과 새로운 규제의 규제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공시 보고서 작성시 매년 정의하고 취합하기 어려움



데이터 확보

데이터 관리 주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기존 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에 데이터가 산재되어 있어 데이터 확보가 어려움

데이터 투명성

공시 규제에 따라 제공되는 데이터는 증빙 가능한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KPMG ESG LINC 차별화 요소 1: 데이터 중심의 공시 대응 지원 상세(1/3)

기업 내 ESG 지표 Framework



US SEC



EFRAG



ISSB

상세 지표 정의 및 데이터 연계

ESG 표준 DATA SET 세부 지표 관리

기본 정보

ESG 표준: ISS 기준

ESG 지표의 범위: 기후 변화

ESG 지표 Framework

ESG 표준: KPMG Standard

ESG 지표의 범위: 환경 오염

하위 상세 지표

Tagging

Standard: STANDARD_ISSB, STANDARD_ESRS, STANDARD_SEC

요구여부:

관련 규제 정보

Data

필요 데이터	단위	Data Owner	시스템 I/F	I/F 시스템명	데이터 지표 변환 로직
Scope 1 배출량	tonCO2eq	모재광	<input checked="" type="checkbox"/>	CEMS	-

관련 데이터 및 책임자

닫기 | 저장 | 결과상선

다양한 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내 ESG 표준 지표 관리 뿐만 아니라 관련 데이터의 사전 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조 구현

KPMG ESG LINC 차별화 요소 1: 데이터 중심의 공시 대응 지원 상세(2/3)



ESG 지표 관리자
공시기준별
ESG지표를 관리,
데이터 책임자 지정

01

데이터 책임자 / 로직 컨트롤러
데이터의 관리 여부 및 프로세스의 정립 확인
데이터 프로세서를 지정

03

공시 지표별 작성자
각각의 데이터들은 지표로 연결되어 있어 확정된
증빙가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가능

05

공시 총괄 담당자
지표별 데이터와 공시의 확인

06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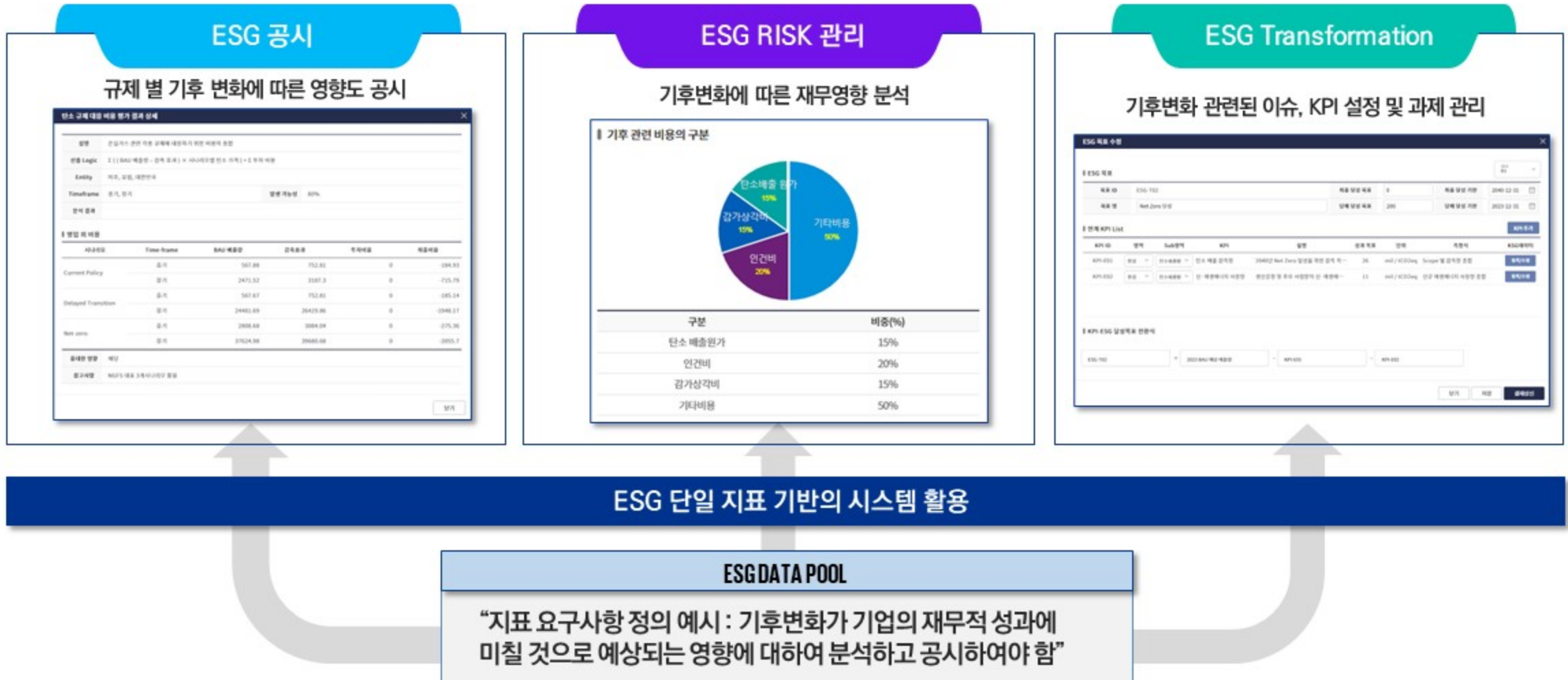
IT
지표 - 데이터의 IT 연계 지원

04

데이터 프로세서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를 확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기 입력

KPMG ESG LINC 차별화 요소 1: 데이터 중심의 공시 대응 지원 상세(3/3)

ESG 단일 지표 기반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공시 대응을 지원, 기업의 ESG 성과 개선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



영상 시연



KPMG ESG LINC 차별화 요소 1: 데이터 중심의 공시 대응 지원 상세 요약

규제별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표준지표 SET과 운영데이터 연계 관리를 통해 공시 데이터 투명성의 확보

KPMG **ESGL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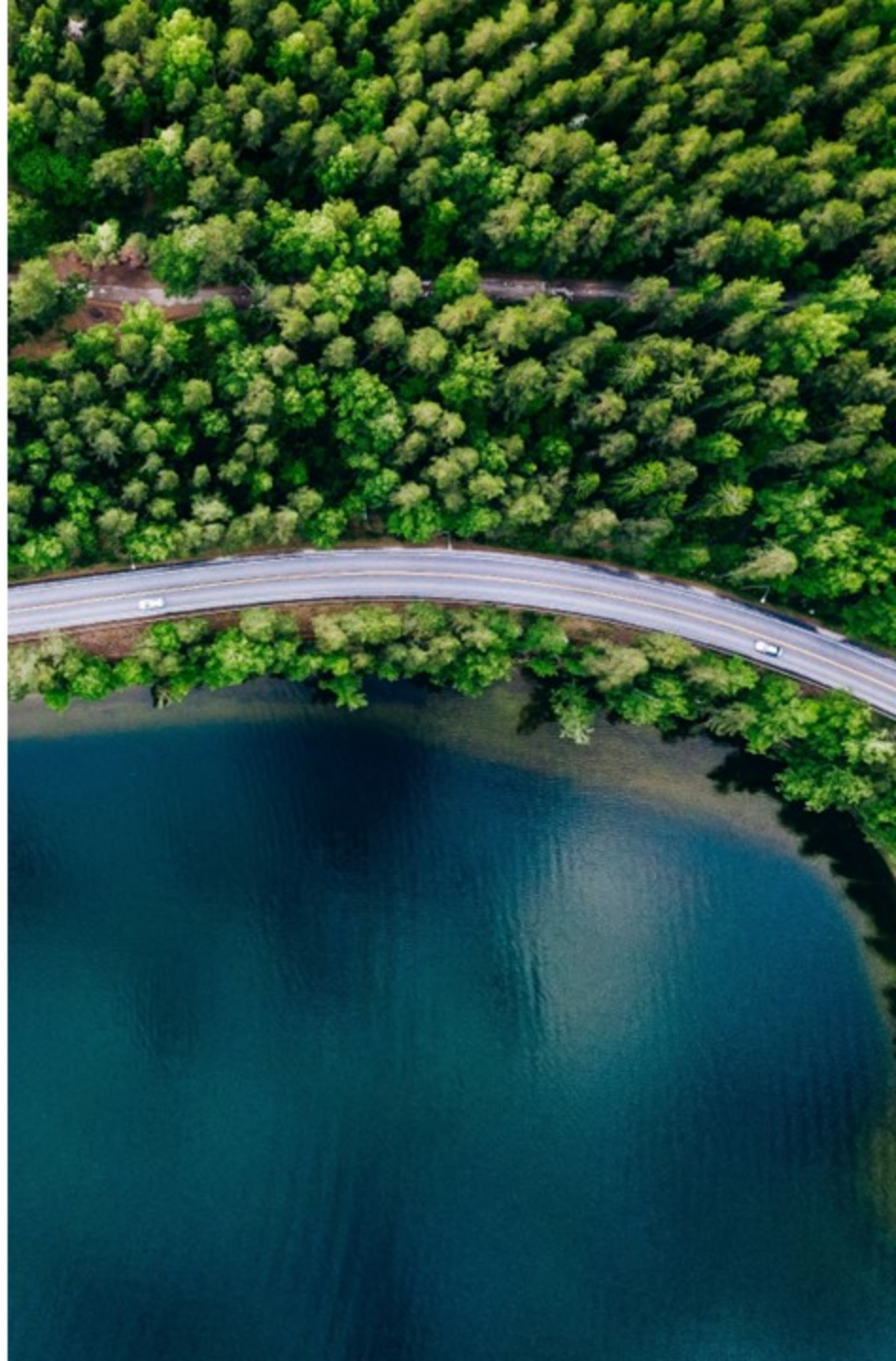
Compliant

Strategic

Transformative

KPMGESGLINC 차별화 요소 ②

기후 리스크 영향과 친환경 경영활동의
재무적 정량화로 기후 변화 대응 전략 모색



기후 변화에 따른 기업 가치 평가 배경

“기후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을 재무 지표로 파악하여 기업가치 분석 및 공시 필요



KPMG ESG LINC

A 리스크/기회 재무영향 분석

- 리스크/기회 요인 식별 및 중대성 요건 부합 판별
- 재무 영향, 지출 지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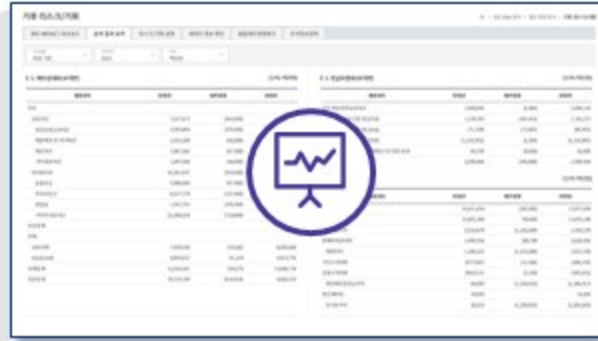
B 친환경 경영활동 재무지표 산출

- Taxonomy 규정에 따른 친환경 경영활동 분류
- 적격/적합 재무 지표 산출

KPMG ESG LINC 차별화 요소 2: 기후 리스크 / 기회 요인을 기반으로 한 재무적 영향 분석

기업 특성에 맞는 리스크/기회 요인과 관련 외부 데이터 및 시뮬레이션 엔진을 제공, 재무적 영향에 대한 통합 분석

KPMG ESG LINC



1 기후 리스크/기회 요인 식별

2 시나리오 선택 및 분석 수행

3 정보 공시 및 경영의사 결정에 활용

KPMG ESG LINC 차별화 요소 2: 기후 리스크 / 기회 요인을 기반으로 한 재무적 영향 분석

1 기후 리스크/기회 요인 식별

2 시나리오 선택 및 분석 수행

3 정보 공시 및 경영의사 결정에 활용

“우리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리스크/기회 요인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US SEC



EFRAG



ISSB



KPMG ESG LINC 차별화 요소 2: 기후 리스크 / 기회 요인을 기반으로 한 재무적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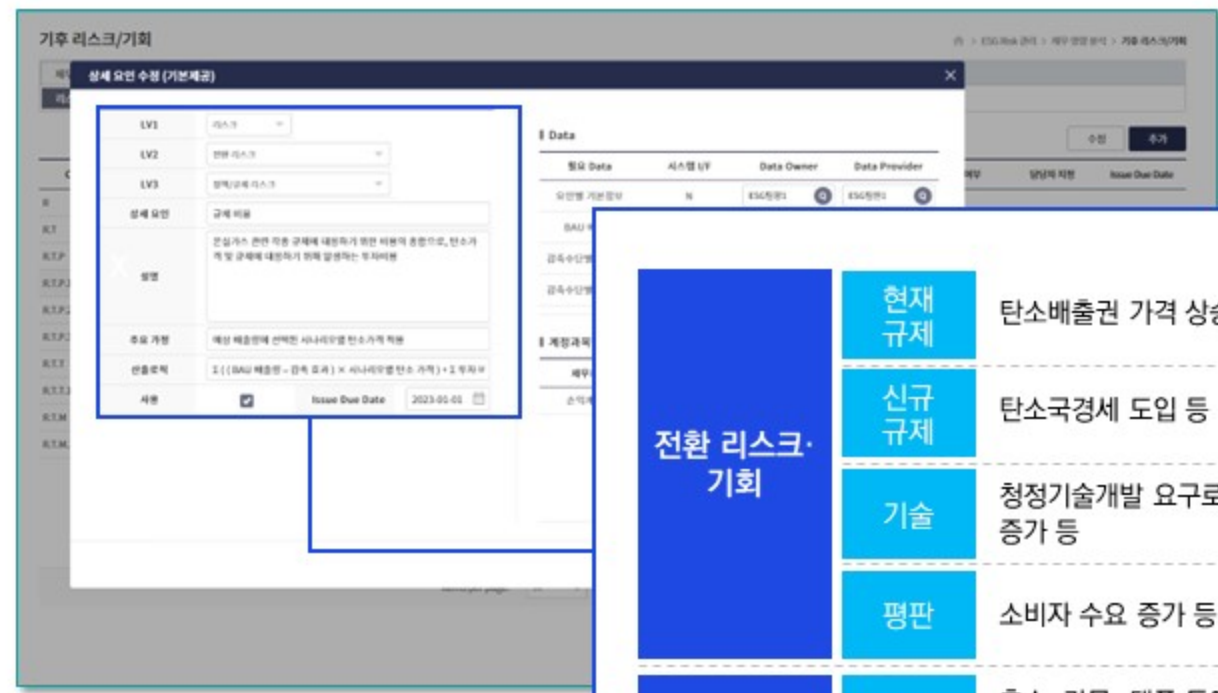
1 기후 리스크/기회 요인 식별

2 시나리오 선택 및 분석 수행

3 정보 공시 및 경영의사 결정에 활용



“ 분석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리스크/기회 요인, Data, 추정·가정 등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맞게 Customize 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 리스크·기회	현재 규제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등
	신규 규제	탄소국경세 도입 등
	기술	청정기술개발 요구로 관련 R&D 비용 증가 등
물리적 리스크	평판	소비자 수요 증가 등
	급성	홍수, 가뭄, 태풍 등에 따른 고정자산 손상 등
	만성	기온 상승에 따른 시설냉각비 증가 등

KPMG ESG LINC 차별화 요소 2: 기후 리스크 / 기회 요인을 기반으로 한 재무적 영향 분석

1 기후 리스크/기회 요인 식별

2 시나리오 선택 및 분석 수행

3 정보 공시 및 경영의사 결정에 활용

“내/외부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파악이 어렵고, 수기로 정량적인 영향 평가가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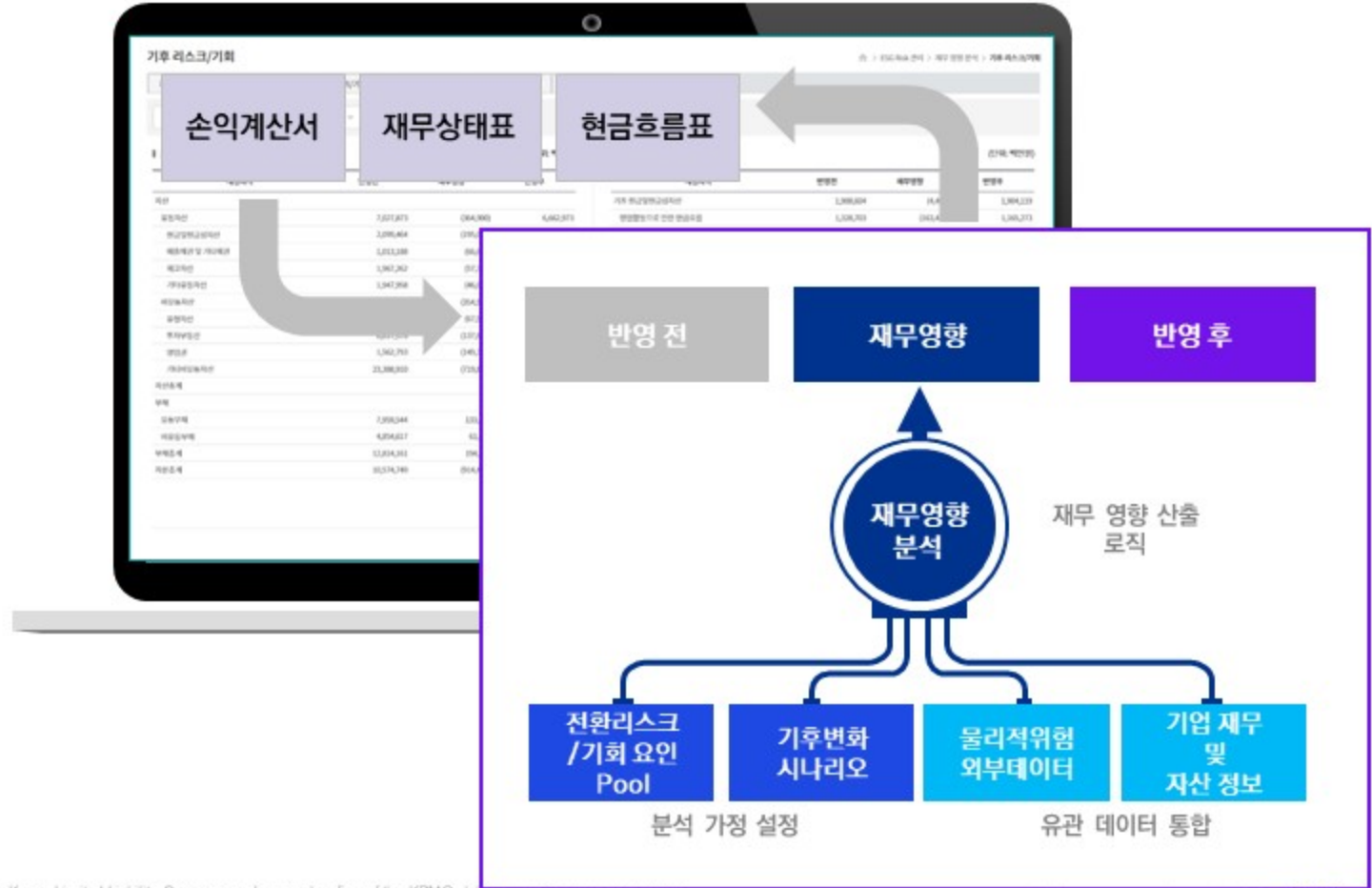


KPMG ESG LINC 차별화 요소 2: 기후 리스크 / 기회 요인을 기반으로 한 재무적 영향 분석

- 1 기후 리스크/기회 요인 식별
- 2 시나리오 선택 및 분석 수행**
- 3 정보 공시 및 경영의사 결정에 활용

KPMG ESG LINC

“ 시스템 연계 및 검증된 외부 데이터를 포함하여 자체 시뮬레이션 엔진을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계정과목 별 재무영향 산출이 가능합니다 ”



KPMG ESG LINC 차별화 요소 2: 기후 리스크 / 기회 요인을 기반으로 한 재무적 영향 분석

1 기후 리스크/기회 요인 식별

2 시나리오 선택 및 분석 수행

3 정보 공시 및 경영의사 결정에 활용

“재무적 분석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공시 보고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단순 현재 가치 기준의 영향 분석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경영전략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KPMG ESG LINC 차별화 요소 2: 기후 리스크 / 기회 요인을 기반으로 한 재무적 영향 분석

1 기후 리스크/기회 요인 식별

2 시나리오 선택 및 분석 수행

3 정보 공시 및 경영의사 결정에 활용

KPMG ESG LINC

“공시 표준별 Template에 따라 공시할 수 있는 형태로 결과값이 도출되며 연도별 영향도 및 미래 재무영향의 예측, 다양한 대시보드를 통해 전략 수립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 합니다.”



영상 시연



[Back up] KPMG ESG LINC 차별화 요소 2: 친환경 경영활동 분석 예시

기업의 경영활동을 EU Taxonomy를 기반으로 분류하고 재무지표/사업장 별로 연계하여 공시 대응 및 분석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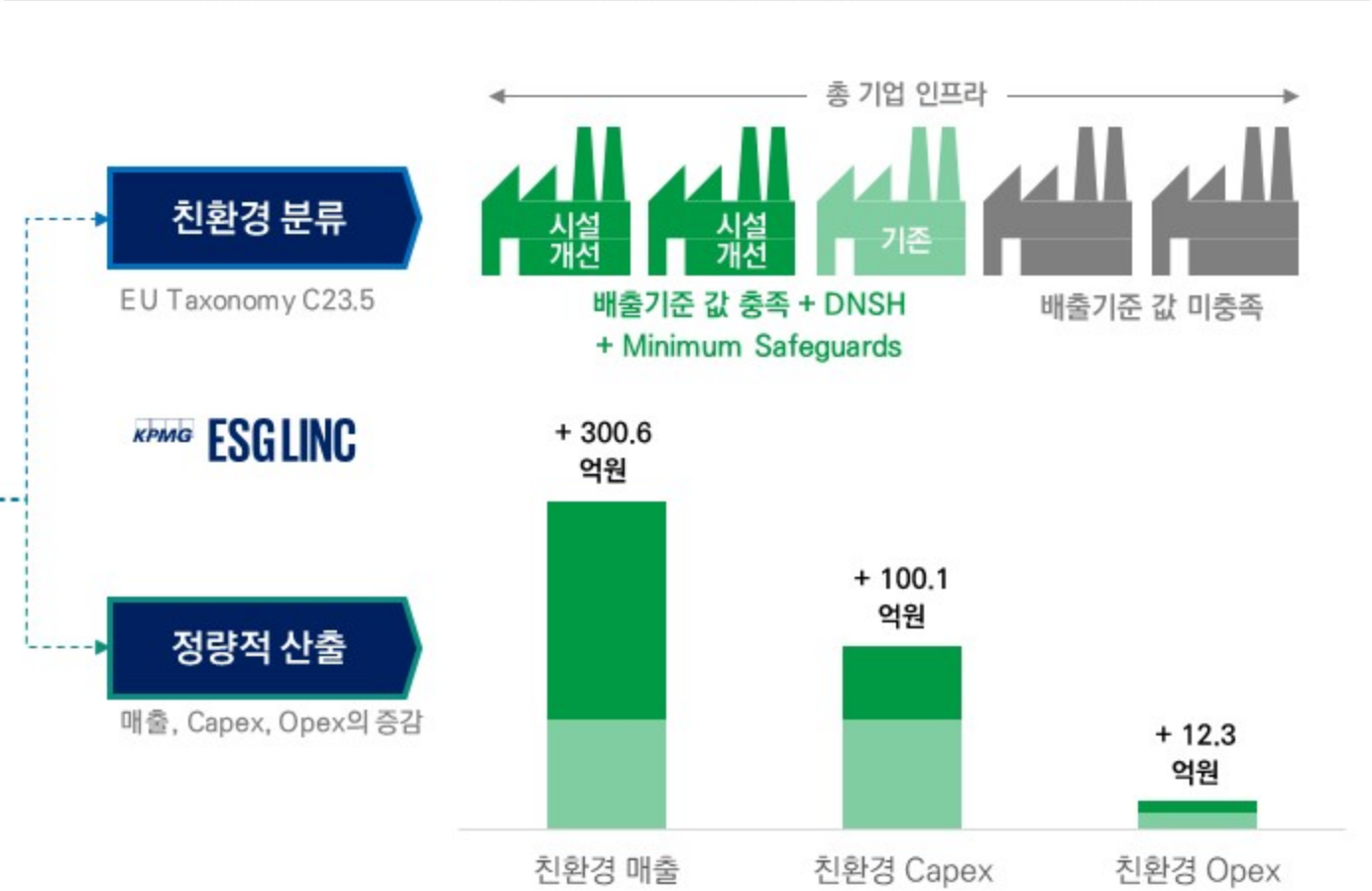
제조업 사례



시멘트 제조기업의 시설 개조

한 시멘트 기업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가장 큰 두개 공장을 개조 및 적용시키려 합니다. 이번 시멘트 시설 개조에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위한 개조, 시멘트에 대한 클링커 비율을 0.65 이하로 줄이기 위한 혼합 재료 사용의 증가, 클링커 및 바인더 대체품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시멘트 생산 시설은 약 3GJ/t 클링커의 열 에너지 집약도로,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탄소 집약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 경영활동 분류 및 정량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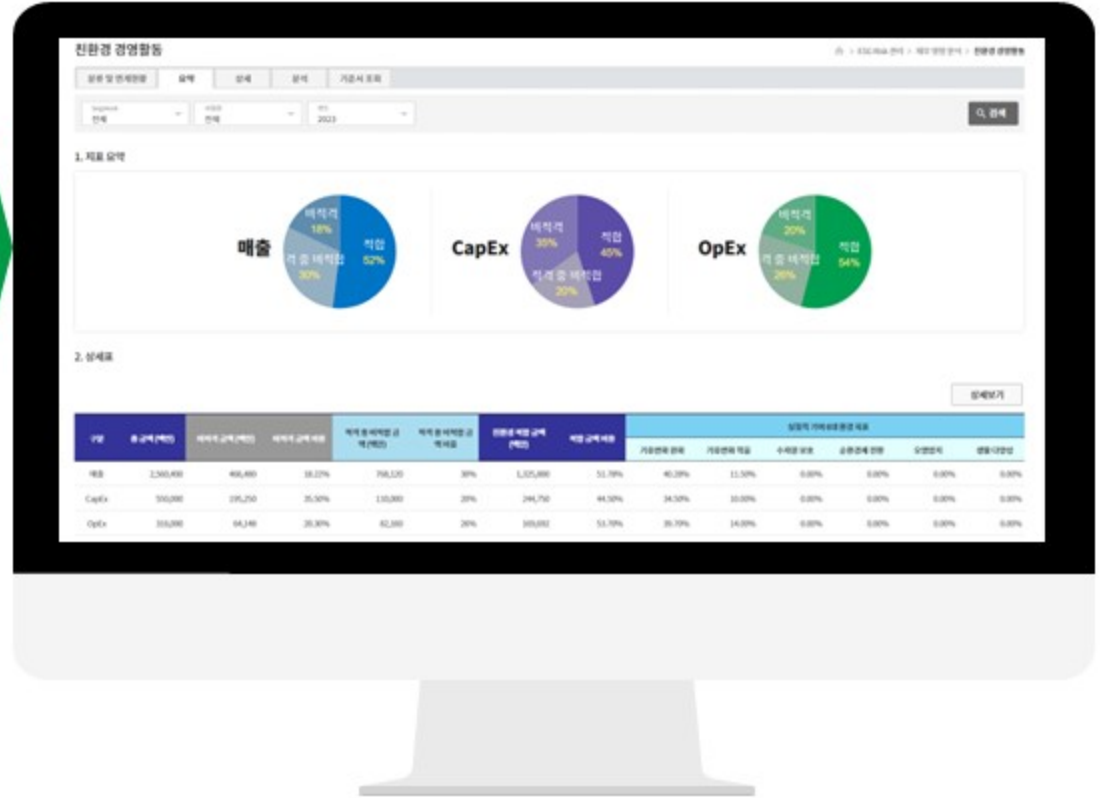
KPMG ESG LINC 차별화 요소 2: 친환경 경영활동 분석

1단계 : 기업내 경제 활동 분류 → 2단계 : 환경 기준에 따른 검토 → 3단계 : 친환경 매출, CAPEX, OPEX 산출 및 공시 대응



- 인정기준(Criteria) 충족여부
- +
- 배제기준(DNSH*) 충족여부
- +
- 보호기준(Safeguard) 충족여부

*DNSH : Do no significant harm



영상 시연



Summary

Compliant

재무 영향에 대한 공시 대응



Strategic

데이터 분석 기반 경영전략 수립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리스크/기회를 재무영향 분석

01

KPMG ESG LINC

ESG



재무적
영향

02

EU Taxonomy 기반 친환경 활동 분류 및
매출, Capex, Opex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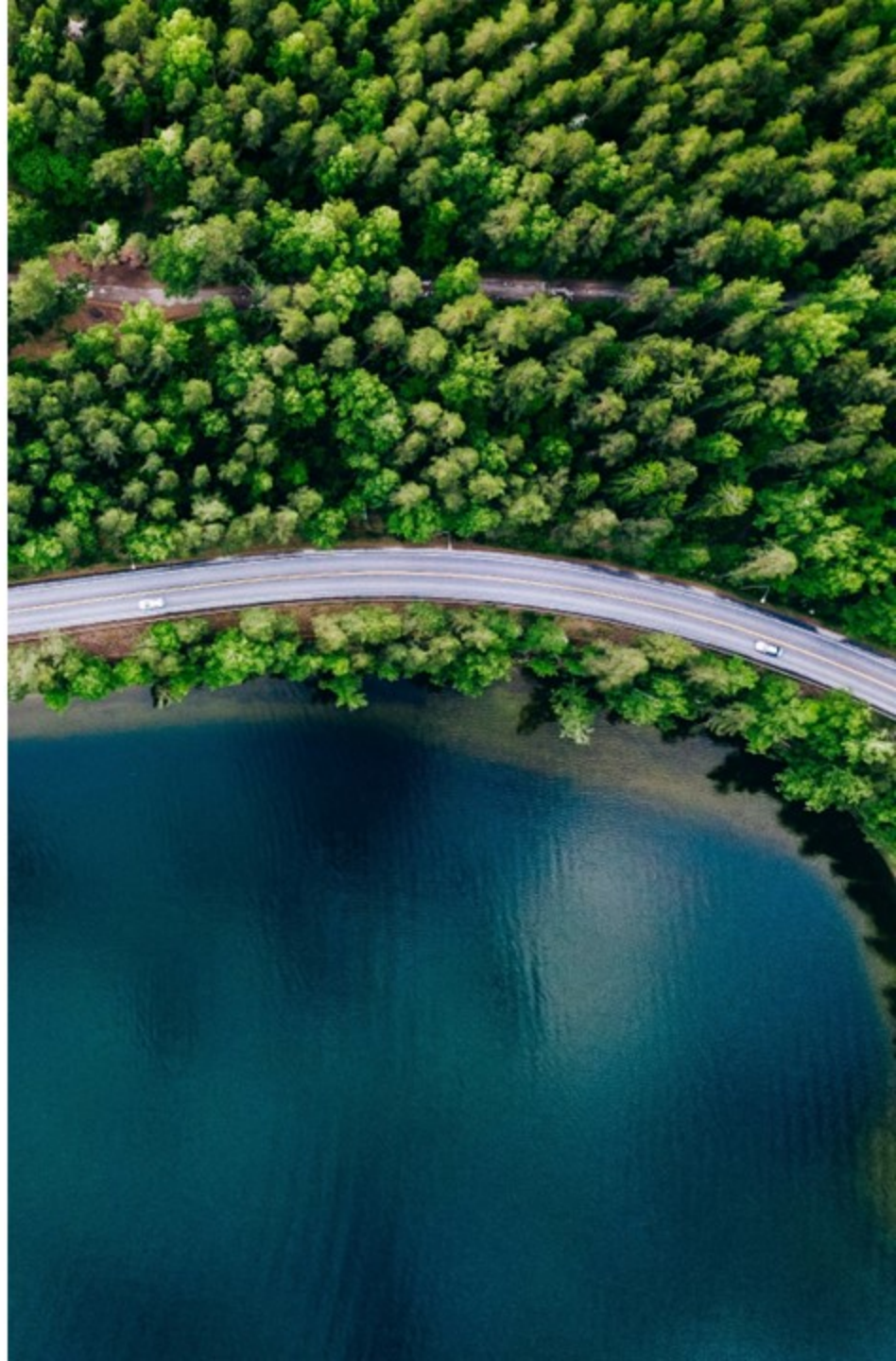
Compliant

Strategic

Transformative

KPMGESGLINC 차별화 요소 ③

ESG 성과와 기업 경영성과의 연계



EST Transformation과 기업 경영성과

“ ESG 혁신과 타 혁신활동의 연계를 고려하여 전략적인 지속가능성의 추구를 통한 기업 핵심 가치 창출 필요



KPMG ESG LINC 차별화 요소 3: ESG 성과와 기업 경영성과의 연계

과제관리 Workflow



ESG 이슈 현황

사업장별 KPI 관리

사업장	과제명	진행률	담당자	시행일	결과	비고
사업장 A	과제 A	100%	담당자 A	2023-10-31	완료	
사업장 B	과제 B	80%	담당자 B	2023-10-31	진행	
사업장 C	과제 C	50%	담당자 C	2023-10-31	진행	
사업장 D	과제 D	20%	담당자 D	2023-10-31	진행	
사업장 E	과제 E	10%	담당자 E	2023-10-31	진행	

사업장별 KPI / 과제관리

ESG 과제 성과 분석

과제명	담당자	진행률	시행일	비고	ESG 과제 성과			시행일	진행률
					ESG	환경	사회		
과제 A	담당자 A	100%	2023-10-31	완료	100%	100%	100%	2023-10-31	100%
과제 B	담당자 B	80%	2023-10-31	진행	80%	80%	80%	2023-10-31	80%
과제 C	담당자 C	50%	2023-10-31	진행	50%	50%	50%	2023-10-31	50%
과제 D	담당자 D	20%	2023-10-31	진행	20%	20%	20%	2023-10-31	20%
과제 E	담당자 E	10%	2023-10-31	진행	10%	10%	10%	2023-10-31	10%

과제 성과 관리



ESG Dashboard

ESG DATA POOL

ESG Risk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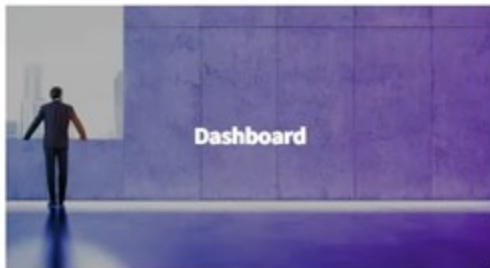
ESG Transformation

ESG 공시

ADMIN



KPMG ESG LINC



Dashboard



ESG Data Pool



ESG Risk 관리



ESG Trans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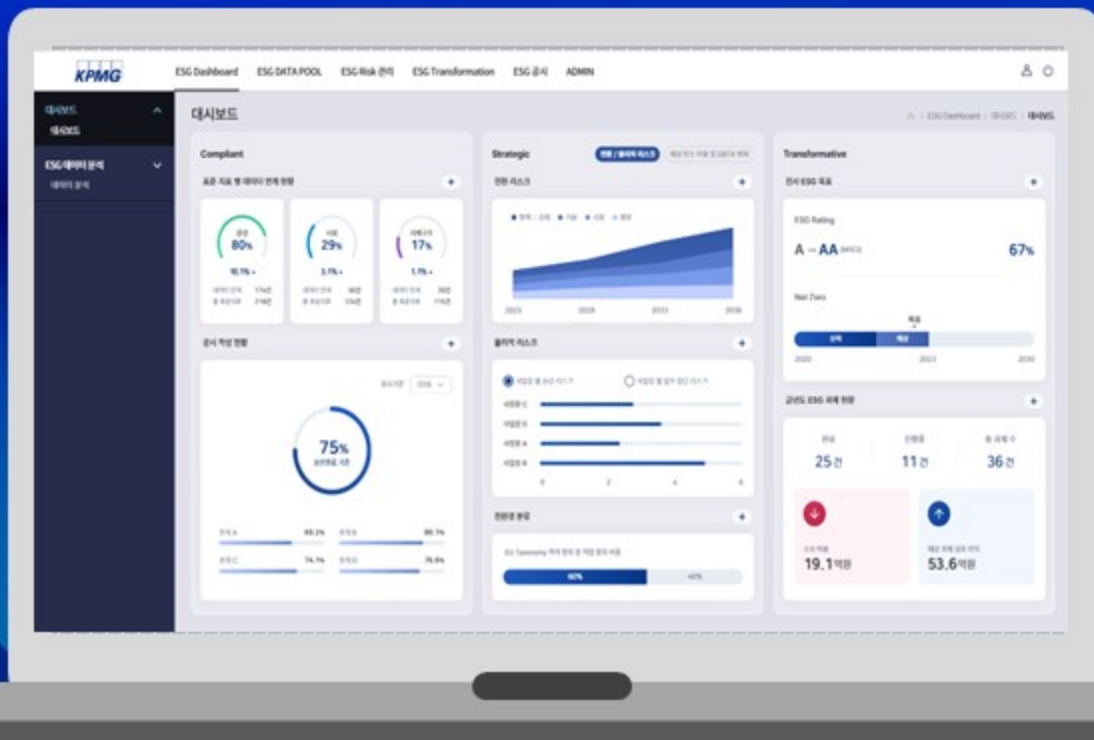
ESG 공시

데이터 관리

ESG 지표 중심의 데이터 구조와
관리 거버넌스

규제 대응

규제별, 담당자별 보고서 작성 및
현황 파악 지원



재무 영향 평가

재무영향 분석과 친환경 분류를
통한 기업 전략 도출 지원

ESG 혁신

ESG 개선과 기업경영활동 개선을
연계한 과제 성과 관리

KPMG ESG LINC는 ESG End to End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며
많은 Big Tech 기업과 함께 지원영역을 넓혀 나아가려고 합니다.

Q&A

Q1. 기업 입장에서 ESG 정보공시 의무화라는 새로운 규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나요? (리스크 vs. 기회)

Q2. ESG 정보공시 의무화 규제가 생기면서 앞으로 데이터 공개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Internal Audit 기능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Q3. KPMG LINC와 같은 데이터 시스템 구현이 필수적인가요?

단기에 준비가 어려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궁금합니다.

Closing Remarks

삼성KPMG ESG 비즈니스그룹 (1/2)

삼성KPMG ESG 비즈니스그룹은 2008년 국내 자문사 최초로 설립되었고,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인 1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선도기업 대상으로 최고의 One-Stop ESG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SG 관련 Publication



| Why 삼성KPMG

- 01 국내 최대 규모의 ESG 조직
- 02 독보적인 ESG 자문 경험 보유
- 03 글로벌 ESG DB 및 네트워크 구축

ESG 비전 및 성장 전략부터 탄소중립, 기후변화, 공급망, ESG 정보공시대응, ESG 데이터 플랫폼, ESG 평가 대응 등 주요 ESG 분야에서 시장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문의 : 삼성KPMG ESG 자문서비스 홈페이지
(<https://kpmg.com/kr/ko/home/services/special-service/special-report-esg.html>)

모바일 앱용 QR-Code



삼성KPMG ESG 비즈니스그룹 (2/2)

삼성KPMG는 업계 최고 수준의 ESG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ESG 2.0 시대에 국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뢰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me.kpmg/kr

KPMG International and its related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No member firm has any authority to obligate or bind KPMG International, any of its related entities or any other member firm vis-à-vis third parties, nor does KPMG International or any of its related entities have any such authority to obligate or bind any member firm.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